



특집 기독교대안학교

사람 사이 박현수 별무리학교 명예 교장

철학, 시론 '더 나은' 학교

문화로 세상 보기 교육은 백년지대계,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ISSN 2671-8731



Contents

JULY + AUGUST · 2021

시선

충성된 청지기 양성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기독교 대안교육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 신국원 04

특집

기독교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 강영택 06

감사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 박영주 08

‘별무리학교’ 이야기 | 이상찬 10

한 영혼을 살리는 교육 | 이인희 12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높은뜻씨앗스쿨 | 장슬기 14

새로운 공공성을 창조해가는 학교 | 이사훈 16

샘물, 흘러 넘치다 | 유승민 18

사람 사이

박현수 별무리학교 명예 교장 20

섬김의 자리에서

학자들의 기독교 문화 운동 | 강진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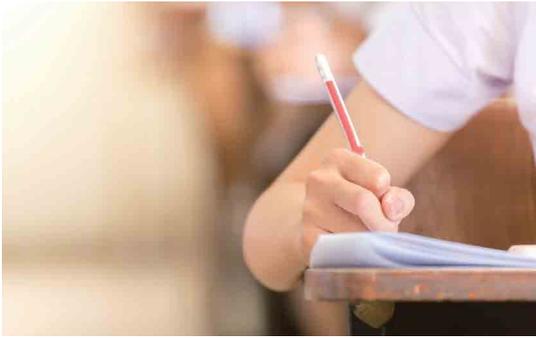


2021. 7+8월호 | 제13호(통권 228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더 나은' 학교 김재완	26
빈민 선교, 대안을 꿈꾸며 홍성우	28
청년, 일터 이야기	
삶을 나누는 교사가 되기를 공현석	30
가장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숙제, 기다림 박지현	32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추태화	34
미술을 보다	
개혁주의 미술교육자 한스 로크마커가 남긴 유산 서성록	36
책을 보다	
하나님의 품 넓은 지혜 안에서 하나 됨 이경건	38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삶'을 위한 교과서 이래신	40
떡으로 배부른 이의 영적 기갈을 해갈하다 박상봉	42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적 문화 신학의 입장에서 황영철	44



교회 路

동문교회 '학문과 신앙 통합모임' 권오병	46
소감문 :	
사해에 물길 여는 비전 예배 예상희	47

온전한 지성

기독교대한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김성천	48

소식

독자한마디	50
사무국 소식	51
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충성된 청지기 양성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는 “인간이란 그가 먹는 것으로 이뤄진다”(Der Mensch ist, was er ißt)라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간이란 그가 받아들이는 정보에 의하여 이뤄진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을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김치나 된장이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 교육,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일 것이다. 특히 교육은 문화 전수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 세계에서는 한국만큼 교육이 획일적인 나라도 많지 않다. 사립학교가 적지 않지만, 모두가 국가가 정해놓은 교과과정을 어김없이 따라야 하고 초·중·고 교육이 실제로는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공립학교와의 차이가 거의 없다. 대입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평가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이념이나 세계관이 개입될 틈이 없다. 거기다가 등록금 동결로 인건비까지 국가의 보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립학교란 유명 무실해졌고 한국 교육의 획일화는 공고해졌다.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역동적인 사회와 다양한 창

조성이 장려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교육이 허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생겨나므로 대안학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각종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대안학교 수백 개가 설립되었다. 그 가운데 절대다수는 기독교 계통으로 인가, 비인가 학교를 모두 합치면 기독교대안학교는 6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모두가 다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다.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기독교대안학교가 많은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 우선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은 사람들이 착각하듯 가치나 이념에서 중립적이지 않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며 과학만능주의적 세계관에 굳건히 입각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신자라면 자신의 자녀가 그런 세계관을 수용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세계관은 차치하고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 사랑의 고귀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교육은 받을 수 있기

를 원할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펼쳐 왔으나 다분히 이론적이고 아직도 모색단체에 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도의 상태에서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대안학교 상당수가 이미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육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대표적인 기독교대안학교들과 기독교세계관동역회가 기독교 교육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한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이제 비록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기독교대안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동역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념과 가치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려는 세속적 유혹, 그리고 홍수처럼 몰려오는 하급 정보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을 정도의 비판적 지능은 갖추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관 교육이 불가결하다.

세계관 교육과 함께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실현함으로써 기독교대안학교의 존재의의를 확립하고 과시하는 것이다. 지금 공교육의 실제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창의적인 사고로 경쟁에 이기고 출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대안은 이기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 특히 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를 양성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암기하고 정답을 찾는 지식 교육에보다 정의와 정직, 사랑과 절제가 내면화된 '인격 형성'(character building)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교육은 말과 글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지식 교육은 앞으로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그런 교육은 경쟁에 이기기 위한 능력 배양이 목적인 지금의 공교육이 이미 힘써 수행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지식이 아니라 교육자의 모범과 학생의 삶과 행동으로 성경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식은 참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자들은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인격과 신앙에서 공교육 교사들과 다를 뿐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나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가능한 한 어릴 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것도 썩어 있지 않은 백지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그다음에 들어올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가정교육이다. 지금처럼 온갖 정보가 물밀 듯 밀려오는데 거기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학교의 뛰어난 교육이라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 가정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과거의 기독교 사립학교의 기능을 감당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경쟁에 쫓겨간 공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이 되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한국 교회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총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 대안교육의 비전을 응원합니다!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 땅에 기독교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난 지 20여 년입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동역회는 근래에 대표적인 기독교대안학교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시선>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차별화된 기독교 교육을 통해 특히 약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 양성을 목표로 삼기를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된 기독교적 덕목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일에 힘써야 할 필요를 강조했지요.

이번 <특집>에선 기독교 대안교육에 헌신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박현수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기독교대안학교의 시대적 과제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교육의 장에서의 오랜 경험 끝에 기독교 교육의 필요를 절감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길을 열고자 노력해온 분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독교대안학교들을 도운 강영택 교수님은 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미인가로 운영의 영세성으로 인해 문을 닫는 현실을 넘어설 방안입니다. 정체성과 개방성 그리고 정체성의 내적 공유를 위한 비전의 소통과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박영주 교수님은 최근 통과된 ‘대안교육법’이 열어준 법적 지위의 보장이 좋은 기회임을 지적합니다. 또 우리 동역

회는 그간 수고해온 기독교 대안교육의 현장 교육가들에 대한 치하와 겸손한 제안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기독교적이며 대안적 요소를 핵심 요소로 꼽습니다. ‘별무리학교’ 이상찬 선생님은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중핵교육과정이 척도라고 했지요. 넓은 시야를 갖춘 교육적 전문성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꿈의 학교’ 이인희 선생님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맞서 특히 입시 교육에 매인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대안대학과정을 소개합니다. 다양성과 공동체성, 개별성의 건강한 교육 생태계 환경이 미래의 희망이라며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높은뜻씨앗스쿨’ 장슬기 선생님은 공교육이 정의한 ‘기독교대안학교’라는 명칭보다 ‘기독교 학교’라는 명칭을 선호합니다. 입시 중심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특정 교회 중심일 경우 리더십과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해 여러 교회와의 협동조합형 학교 설립도 고려할 필요를 말합니다. ‘드리미학교’ 이사훈 선생님은 놀이, 수행, 실천의 3P 교육을 선택과 창의 활동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관계 형성, 자기 주도 학습을 소개합니다. ‘샘물학교’의 유승민 선생님도 창의적 활동과 소통 능력, 자율성에 초점을 둔 메이커 교육을 소개하며 예산 운영과 학생 모집, 진학

지도 같은 실제적 운영의 고민도 나눕니다. 끝부분 <온전한 지성>에 요약된 김성천 교수님의 “기독교대안 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논문 소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김의 자리> 강진구 교수님은 기독교 학자들이 거의 부재했던 대중문화 현장에 헌신해왔습니다. 정치 운동권이 문화 운동으로 바뀌던 시기에 영상물등급 위원으로 활동하며 심의 기준 설정에 기여했습니다. 동역회 안에서는 미디어 아카데미와 국민일보 기자 훈련을 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청년 시론>에서 김재완 형제는 예수향남교회 전도사로 교회사역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경험을 나눕니다. 서울역 쪽방촌 빈민들을 섬기는 홍성우 형제는 선교를 전제하지 않는 순수한 만남과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존중하는 대화하기를 통해, ‘단힌 복음’이 아닌 ‘열린 복음’의 제시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청년 일터 이야기>에서 공헌석 형제와 박지현 자매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된 과정과 그동안의 경험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 추태화 교수님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드라마 <스카이 캐슬>과 <팬트하우스>, 영화 <미나리>에 비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분석하며 ‘창조 질서’에 입각한 교육이 대안임을 제시합니다. <미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님은 대표적인 20세기 현대미술 이론가이며 일종의 기독교 대안 대학 교였던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교수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크게 공헌한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를 소개합니다.

책을 평하는 <책을 보다>의 첫 글에서, 이경건 형제

는 <판소피아와 교육>에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할 동기를 부여받았던 감동을 전합니다. 이래신 선생님은 동역회의 유경상 교수님의 청소년용 기독교 세계관 책인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를 소개합니다. 박상봉 목사님은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자 황의찬 목사님이 시도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야기 신학’을 평합니다. 웨슬리 선교사님과 황영철 목사님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인 윌리엄 에드거(William Edgar)의 ‘성경적 문화신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Created and Creating>(2016)을 소개해줍니다.

<교회路>에선 권오병 교수님이 분당 동문교회의 ‘비전 예배’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삶의 다양한 분야를 조명해온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상희 집사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간증을 ‘개인수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막 시작된 장마와 함께 ‘코로나 19’의 감염 재확산이라는 우울한 소식을 접합니다. 동역회의 모든 회원들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호를 위해서도 수고해주신 필진과 편집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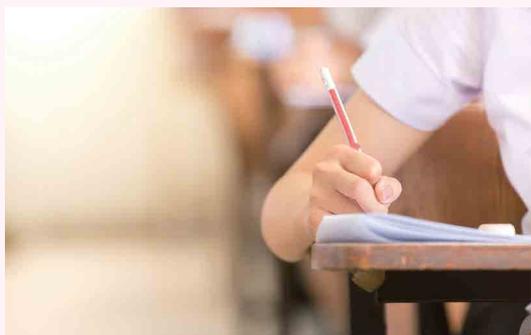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강영택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대안학교’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전후부터였다. 그러나 그 말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독교대안학교의 개념은 이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세 단어, 즉 ‘기독교’, ‘대안’, ‘학교’에 대한 해석과 이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져 왔다.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 운동의 역사에는 간략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배경과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1980년대 이후 불기 시작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영향을 받아 성경적 관점으로 교육을 보려는 노력이 배경이 되었다. 이 시도는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오랜 전통의 기독교 학교(미션스쿨)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기독교대안학교를 등장시켰다. 이 흐름 속에서는 ‘기독교’, ‘대안’, ‘학교’의

세 요소 중 특히 ‘기독교’를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그 이전과는 달리 해석하였다. 즉, 기존의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를 ‘학교 교육’과 별개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교육을 기독교 신앙 전파의 방편으로 이해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적 관점이 학교 교육의 전반, 특히 교육과정에 스며드는 기독교대안학교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독교’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신앙과 교육의 통합을 추구한 학교들은 서구 특히 미국의 기독교 학교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둘째는 199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대안학교운동이 배경이 되었다. 획일적 주입식 위주의 입시교육이 주류를 차지했던 공교육에 반발하여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자율성, 자발성, 공동체성, 생태적 삶 같은 대안적 가치들을 교육의 모토로 내세웠다. 이 맥락에서 기독교계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먼저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로 삼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원조로 알려진 풀무학교를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하나의 흐름은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를 ‘교회(당)의 활용’, ‘신앙교육’, ‘전도’, ‘세속으로부터 분리’ 등으로 해석하여 대안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들은 교회 내의 교인 자녀들에게 분리된 환경 속에서

신앙과 교과 지식을 함께 가르치고자 했다.

이처럼 몇 가지 흐름 속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은 2002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으로 272개의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는 학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 중 87%가 미인가로 운영된다는 점은 그 영세성을 엿보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대안학교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대안이 되어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지속가능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독교대안학교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독교’, ‘대안’, ‘학교’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이들의 절충점을 찾아 기독교대안학교의 정체성으로 삼으려 한다. 이 경우에는 대개 ‘학교’의 성향이 약화되어 기독교대안학교는 교회와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반면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보려고 할 때는 이 요소들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밝혀 각 요소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통합체인 기독교대안학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대안’ 교육은 공교육을 비판하며 등장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교육의 본질 회복에 있다면 ‘대안’과 ‘학교’는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 그리고 ‘학교’는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는 곳이고,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은 상대와 참된 관계를 맺는 일이며, 관계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유사하다.

둘째, 기독교대안학교는 외부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학교 조직은 사회환경에 문을 닫고는 존속할 수 없는 개방체제(Open System)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마을교육공

동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대안학교들은 학교의 내적 안정성을 확립하느라 외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왔다. 학교의 내적 안정은 외부와의 건강한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기독교대안학교는 다른 기독교대안학교들과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넘어 대안학교 그룹과 공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대안학교는 내적으로 소통 및 대화를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분명한 비전과 교육목표 그리고 엄격한 규범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 학교의 속성상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대화가 일상화될 때 가능하다. 외국의 기독교 학교가 지닌 훌륭한 비전, 목표, 규범들을 맥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식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고정 불변의 것인 양 구성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하는 일은 학교의 정체성을 화석화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길이 된다.

기독교(대안)학교는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새로운 접근방식의 혁신적 교육으로 희망의 빛을 비추어왔다. 그러한 역할을 지속하는 기독교 학교가 되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강영택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BBA),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M.A.), 미시간 주립 대학교(교육행정 전공, Ph.D.)에서 공부했다. 저서로 <마을을 품은 학교공동체>(2017), <마을교육공동체운동 : 세계적 동향과 전망>(공저, 2019), <숨이 있는 교육>(공저, 2020) 등이 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한국인들은 교육열이라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육이나 학문 자체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는다. 그 말인즉, 우리는 공부 자체보다는 공부의 결과를 더 추구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모순적인 사실을 꼭 짚어서 누가,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DNA로 굳어져, 자연스럽게까지 한 우리의 성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교적 세계관의 영향을 강력히 받아온 우리 선조들에게 교육의 최종 목표는 과거 급제를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이었다. 이 DNA를 이어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힘겹고 치열한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학벌을 통해서라도 개천에서 용이 되어 보려는 교육 열기로 온 나라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수혜를 누린 편에 더 가깝다. 서양 문화를 일반인보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기독교 지성인들은 일찍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 유학을 통해 한국 사회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필자의 경우도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감행했던 동기가 결코 학문 연구에만 있지 않았다. 어린 시절 로망이었던 미국 유학을 통해 교육계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모든 기독교 지성인들을 한꺼번에 폄하하지는 말아야겠지만, 많은 경우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벌여왔다는 아쉬운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교육계에 상이한 두 진영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그들은 흥미롭게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한 진영은 유학을 통해 서구 기독교 문화를 경험했던 기독교 학자들이었다. 주로 미국 지역의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냈던 그들은 귀국 후 한국의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풍토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대

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우선은 자녀들을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생겨났다. 또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한편 중대형 교회나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그중에는 공교육 기관으로 인증된 학교도 있으며, 많은 경우 공교육 못지않은 시설과 인적 물적 자원을 탄탄하게 갖춘 대안학교들이 속속 설립되었다.

또 하나는 전자에 비하면 덜 주목받으면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온 토착적인 대안교육 진영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 세대가 교육 현실을 감내하던 방식으로 학교생활을 감당하려 들지 않았다. 아직 어려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직감적으로 자신과는 맞지 않는 학교라는 거대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을 한동안 사회부적응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분리시켰다. 그런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끌어안아 교육을 계속할 기회를 열어준 작은 교회, 개인, 단체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본연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되찾아 가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다.

두 진영 모두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상한 용어로 규정된 사회적 차별 속에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여 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2020년에 ‘대안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을 길은 열렸다. 하지만 아직 기독교 대안교육이 지극히 한국적인 세계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작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을 기억한다. 간신히 아이들 마음을 붙들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

김없이 부모들이 대학 입시 교육을 요구한다. 이 상황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 같으며 한껏 풀 죽은 표정을 지으시던 그분의 손등에는 자해하려는 아이를 보호하려다 대신 찢린 깊은 칼자국 상처가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안학교’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은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진 세계관의 영향력 속에서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세계관동역회가 기여할 영역이 있다는 기대를 가져 본다. 각자 고군분투하며 교육 풍토 변화를 위해 헌신해온 대안 교육가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내야겠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참된 기독교세계관적 삶에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사변적 논의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기독교 세계관은 오히려 그 무명의 교육가들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교수이다. 미국 컬럼비아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전(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별무리학교’ 이야기

이상찬 (별무리학교 교장)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적’이고 ‘대안적’인 ‘학교’이어야 한다. 세 가지 요소가 모든 기독교대안학교의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요즘은 기독교적이기도 어렵고 대안적이기도 어렵고 학교이기도 어렵다. ‘기독교적 대안’이나 ‘대안적 학교’나 ‘기독교적 학교’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때문에 결국 기독교대안학교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바보들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그 어려운 일을 너무나 용기 있게 감행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시작했거나 부분적인 것을 실천하고 있으면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모든 비교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대안적’이어야 하며,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별무리학교’는 올해 10년이 된 충청남도 금산 산속의 기독교대안학교이다.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적 교육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안정된 제도권 선생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들이 세웠다. 현재 초등 6학년 부터 12학년까지 287명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있다. 네 가지의 가치를 붙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을 따라 살려는 ‘제자도’가 첫 번째 가치이다. 그러한 제자도를 따르는 자들은 ‘공동체’를 이뤄 더 힘 있게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두 번째 가치이다. 그러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시대적 ‘소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 가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살롬’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이 네 번째 가치이다. 특별히 ‘별무리학교’를 통하여 교육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별무리학교’가 다른 기독교대안학교들과 구별되는 면이 무엇이나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가치를 반영한 ‘중핵교육과정’(learning core 혹은 core curricula)¹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 기독교 세계관을 반영한 가치는 교육과정으로 재해석되어 ‘별무리학교’ 학생 모두에게 심화 발전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중핵교육과정’은 그 학교가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탄탄한 가르침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1. ‘중핵교육과정’은 ‘별무리학교’에서 만든 용어이다. 자체 개발한 기독교세계관, 가치교육, 역량교육의 총합을 지칭한다.

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중핵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 시대의 살아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중핵교육과정'을 통해 교과교육 과정에까지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투영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학교일 것이다. 그 과정은 세뇌나 주입이 아닌 자발적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각 영역에서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2016년부터 '별무리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설계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 교사로서 많은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개설 수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허락하는 것이고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자신의 교수 내용이 공개된다. 교과 교사로 선발된 선생님들은 교과 멘토링과 담임으로서의 조언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학교 안의 교수 요원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 내용을 진로로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계획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는 학교 밖의 전문 인력을 연결시키는 멘토링 플랫폼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학부모와 학교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에게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길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을 '별무리학교'도 똑같이 갖고 있다. 바로 졸업한 학생들의 출구 전략이 거의 대학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여건이 그렇고 구조적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기엔 너무 궁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미래대학, 대안대학, 창업 창직, 갭이어(Gap year)² 등 다양한 형태의 진로 선택이 더 풍성

해지고, 학생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갈 수 있는 많은 선택지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와 비전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있고, 재기발랄한 것 세워진 대안학교들이 있다. 또한 제도권에서 시행하는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학교, 미래학교 등의 다양한 형태들이 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이끌고 있다. 심지어 제도권의 어떤 혁신학교들은 기존의 대안학교보다 대안성이나 학교로서의 면모가 더 탁월하다.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교육과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주요 담론으로 맥락을 잡아가고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자기만의 좁은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교육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파국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이다. 성경 속에 기록된 기독교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나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자신만의 한계로 그 가치를 스스로 가리는 일을 멈추고 서로의 장점을 나누며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미래교육, 가치 중심의 역량교육을 가장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곳은 기독교대안학교이다. **FAITH & LIFE**

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4 | 글쓴이 이상찬

충남 금산에 있는 기독교대안학교 '별무리학교' 교장이다. 18년간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다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꿈을 꾸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충남 금산에 '별무리학교'를 설립하였다. '별무리학교' 교사, 별무리교육연구소 소장, '별무리학교' 교감을 역임했다. 미래교육, 학교 설립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교과 멘토링에 대한 현장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 (Gap year)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

한 영혼을 살리는 교육

이인희 (꿈의학교 교장)



‘기독교대안학교’에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기독성’이다. 기독교대안학교는 성경이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토대로 교육을 하는 곳이다. 둘째, ‘대안성’이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근대 교육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안 및 시대적 변혁을 추구하는 곳이다. 셋째, ‘학교성’이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개인의 변화를 위해 학교라는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적 전문성과 행정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진리는 언제나 시대적 혁신을 가져왔고 시대적 혁신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기독교대안학교란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개인의 변화를 통해 시대적 변혁을 실천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교육의 시발점을 한 영혼의 변화에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삶과 삶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교 대안교육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근대교육의 철학적 한계를 드러내고 교육의 본질과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다림줄 역할을 하고 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꿈의학교’는 2002년에 개교하였다. 5만 평의 아름다운 숲속 캠퍼스에서 교육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중등 과정 3개 학년, 고등 과정 3개 학년 총 280여 명이 전원 기숙생활을 하고 있다. 생활관에서는 남녀 각각 6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생활 담임교사 1인이 20-25명의 학생들의 생활 교육, 자기 주도 학습관리 및 진로 상담을 담당하며 신앙 및 인격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학원 및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가르치기 위해 2014년부터 교과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코칭’을 실시하고 있다.

‘꿈의학교’는 ‘세계는 나의 교실, 세계는 나의 일터’라는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약 5개월 동안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중국에서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3주간 베트남 봉사활동이 있으며 이 밖에 방학을 이용해 해외 선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과 수업을 과감하게 없애고 독서를 기반으로 한 ‘독서통합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인문, 자연, 예술, 국제 계열로 나누어 각자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대안대학을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보다 더 나은 기독교대안학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기독교대안교육은 공교육이 지닌 한계, 즉 입시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다양한 이유로 대학진학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꿈의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기독교대안교육이 다시 공교육화되는 것에 대한 위협성을 깨닫게 되자, 기독교 대안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치면서 건강한 대안교육을 위해서는 건강한 대안대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현재 '대안대학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 '대안대학 과정'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한 개인의 올바른 성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교육과정의 대부분은 갭이어(Gap year)¹ 과정을 통한 자아 성찰의 시간과 다양한 경험 및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꿈의학교'는 건강한 대안교육을 위해서 대안대학을 넘어 대안적인 삶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다. 이를 위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졸업생들을 찾아다니고 있으며, 올해부터 자연농업을 통해 자본주

의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을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독교 교육의 본질, 즉 '한 영혼을 살리는 교육'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의 본질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양성', '공동체성', '개별성'이라는 교육생태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기독교대안학교는 이러한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고 건강한 교육생태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기에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는 희망적이라 생각한다.

'꿈의학교' 역시 한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년간 연구를 멈춘 적이 없다. 지금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및 학년 통합을 넘어 공간의 통합을 꿈꾸며 개방형 미래 교실을 건축 중에 있다. 또한 공동체적 만남을 위해 연결 플랫폼인 온라인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성장이력을 가시화하고 명료화하기 위해 LMS(학습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계론적 사고에서 시작된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체성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며, 공동체 속에서도 개성이 살아날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기독교대안학교 안에 존재하는 한,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인희



충남 서산에 있는 기독교대안학교 '꿈의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다. 공주 대학교에서 교육학(학사)을 전공했고, 서원대학교에서 교육학(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교육학(평생교육)을 전공했다. 저서로는 <가치로의 산책>, <북클럽의 비밀> 등이 있으며 현재 대로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1. 갭이어(Gap year)는 학업을 병행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높은뜻씨앗스쿨

장슬기 (높은뜻씨앗스쿨 중등교감)



‘대안학교’라는 기본적 틀은 교육 당국이나 교육자들이 정의한 개념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대안학교’보다는 ‘기독교 학교’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 학교들은 분명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적 대안이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 교육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역량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공교육을 향한 ‘소금과 빛’ 공동체다운 교육적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대안학교를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담은 교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게 하는 책임 있는 제자로 양육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싶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광의적인 교육적 함의를 품어 담아내기 위해, 필자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다음과 같은 지향점으로 그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것은 다음 같은 3대 지향점이다.

‘기독교성’과 신칼뱅주의를 바탕으로 한 변혁적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공성’, 한민족의 역사적 고찰과 현재적 실천으로서의 ‘역사성’, 구시대 교육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 시대 전환적 측면으로서의 ‘미래 지향성’이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높은뜻씨앗스쿨’은 김동호 목사님과 동역하고 있는 ‘높은뜻교회’들이 함께 설립한 연합선교회가 2014년 천안에 세운 기독교대안학교이다. 5~6개 교회의 목사가 3년 동안 이사장직을 순환하는 민주성을 담아내고 있다. ‘높은뜻씨앗스쿨’에서는 이사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과 지원과 감사가 이루어지며,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받고 있는 건강한 학교이다. 초등과정 1~6학년과 중학 과정 7~9학년을 포함한 총 9개 학년 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2022년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다. ‘높은뜻씨앗스쿨’의 인재상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양육 실천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교육’,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성교육’, ‘성경 말씀을 토대로 배우는 지성교육’, ‘다중지능에 기초한 은사 계발 교육’,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공동체적 실천교육’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특별히 제가 교감으로 섬기는 중등 교육과정은 ‘새 패러다임의 아침 묵상’(스토리텔링, 하브루타, 테필린, 실천기도), 공동체 세움(인성, 공동체성 교육),

융합 교과(융합 독서, 융합프로젝트, 융합실천), 양육(지성 양육, 영성 양육), 창의문화 시간(문화창조 자치활동), ‘파종하는 날, 성장하는 주간’(Seeding day, Growing week, 은사를 계발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로드스폴레)’으로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 개설하게 되는 고등과정은, 핵심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학교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천 방향을 준비 중이다. 첫째, 영성공동체(영성공동체체험, 라브리공동체 통합변증, 국제선교훈련, 신앙고전 탐독), 둘째, 화평공동체(비폭력대화, 회복적 서클 학생지도자, 리더십훈련), 셋째, 배움공동체(미래형 온오프라인 학점제, LAB전공수업, 스마트브랜드디자인, 고전독서, 뉘씨경연, 로드스폴레, IT메이커, 학생개설 수업), 넷째, 소명공동체(은사역량개발, 소명교육, U턴십, 연구소논문, Growing week II), 다섯째, 높은뜻 실천공동체(성서한국, 남북통합, 세계선교)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독교대안학교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리더십과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재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있어 ‘고시대 정복론적 성공주의’를 추구하기 십상이기에 이른바 ‘입시 중심적 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 교회 중심의 일부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는 리더십과 교사 전문성 문제, 오너십에 따른 교육 독식, 공공성의 한계, 공동체 분열 등 안타까운 여러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한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가 사유화되고 경제적 이득의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조차 있다는 기독교 대안 교육계의 의미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물론 최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맺은 ‘꿈의학교’, ‘별무리학교’, ‘드리미학교’, ‘높은뜻씨앗스쿨’ 등의 학교들처럼 기독교 학교가 직면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더

불어 스스로 정체성을 점검하며 자정을 하고 있는 건 강한 학교들도 많이 있다. 앞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이른바 성공주의와 입시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기독교대안학교로의 전환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시대의 ‘기독교학교’에 걸맞는 성서적 원형에 대한 연구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들 스스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미래적 교육의 상으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이 걸어갈 표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는 명료하다. 공교육은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을 중심으로 새 시스템을 준비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다수의 ‘기독교학교’들은 앞서 언급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부름과 하나님 나라 교육의 비전을 품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하나님의 방식과 법이 아닌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공동체적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 기독교 교육은 공공성을 담아내어서 공교육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육적 상상을 품은 미래지향적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입시 중심의 교육을 내려놓고, ‘기독교학교’로서의 원형에 대한 숙고와 반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단일교회 중심의 운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협동조합형 기독교대안학교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슬기

기독교대안학교인 높은뜻씨앗스쿨 교감이다. 한국교원대 지구과학과와 북한대학원 대학교 통일교육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한국협동학습연구회 과학교사 대표, 좋은 교사 운동 과학교사 대표, 소명 중고등학교 교감을 역임하였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새로운 공공성을 창조해가는 드림이학교

이사훈 (드림이학교 교감)



‘기독교대안학교’라는 단어는 ‘기독교’, ‘대안’, ‘학교’라는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교육에 대해 각각 고유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기독교이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기독교적이어야 한다. 교육과정, 생활지도, 행정, 그리고 청소와 시설 관리까지 학교의 모든 일을 기독교적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안이라는 단어이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체험활동이나 신앙 활동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대안학교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고유한 대안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에서 해야 하는 공적 역할이 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교육의 형태를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는 새로운 공공성을 창조해내는 기관이어야 한다. 새 시대의 교육으로 사회에 도전을 줌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드림이학교’는 2019년에 개교하였다. 우리는 개교 전 약 3년간의 설립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여러 책과 사례들을 공부하여 ‘5無 3P’라는 고유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우리는 ‘5無’를 선언하면서 학년, 교과, 교과서, 획일성, 경쟁이 없는 학교를 하기로 하였다. 없앴은 있어야 할 것의 강한 반영이다. 다섯 가지를 초월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만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를 담아 ‘3P’(Play, Performance, Practice)라는 개념을 착안하였다. ‘Play’는 ‘놀이’이다. 배움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놀이의 과정이 필요하다. 배움의 대상에 다가가 말을 걸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Performance’는 ‘수행’이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취와 실패를 맞보고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며 성장한다. ‘Practice’는 ‘실천’이다. 배움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배움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실천되면서 세상과 담을 허문다.

3P 교육은 선택 활동과 창의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활동에는 3P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선택 활동은 교사들이 기획한 활동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창의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한 활동에 교사들이 멘토가 되는 것이다. 선택 활동과 창의 활동은 서로를 자극하면서 교육과정을 발전시킨다. 학생들은 선택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창의 활동을 개설하기도 하고, 교사들은 선택 활동과 창의 활동을 연계하여 심화 활동을 한다. 개교 이후로 교사들은 84개의 선택 활동을, 학생들은 303개의 창의 활동을 만들어냈다. '드리미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드리미학교'의 숨은 교육과정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로 '드리미학교'의 학생들은 성적을 위해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교 전부터 성적이 학업의 유일한 동기부여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성적보다 진실한 관계가 학업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놀이'(Play)를 거쳐 배움의 대상과 관계를 맺고, '실행'(Practice)의 과정에서 섬김의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성적을 기록하지만 학생들은 성적보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있다. 정해진 지필고사 기간은 없다. 그럼에도 모두 충분히 바쁘게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밤늦게까지 더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드리미학교'의 배움은 즐거운 놀이이고 실천적 섬김이다.

두 번째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활동은 학교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온다. 학생들은 점차 학교의 주인이 되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다양한 일들을 주도한다. 이러한 문화는 자연스럽게 학교생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이 되어 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대입을 초월한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는 대입에 종속되지 않는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대학교에 갈 것이고, 우리는 입시를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존중하며, 대입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교 이후 3년 차를 맞이하였다. 우리만의 교육과정으로 공부한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자 한다. 첫 3년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다. 현재 우리는 206명 수용 기숙사와 수영장을 갖춘 실내 체육관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교육환경의 변화를 꾀하고, 학교 교육의 강점과 약점, 외부요인 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 학교는 정체되어 있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이전의 토대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해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사훈

충남 천안에 소재한 '드리미학교' 교감이다.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대구기독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기독교대한학교에서 12년째 근무하면서 배우기를 쉬지 않으며 다양한 수업에 도전하고 있다. 드리미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왔다.

샘물, 흘러 넘치다

유승민 (샘물중고등학교 교감)



‘샘물중고등학교’는 2009년 성남 분당의 상가 건물에서 시작해서, 판교를 거쳐 현재 용인 동백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이다. 학교 공간위원회는 캠퍼스를 이전한 후 학교의 역사를 기념하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프로젝트의 참가 인원은 금세 늘어났다. 물론 작업에 대한 관심보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 온 아이들이 더 많았지만 그렇게 결성된 프로젝트팀은 밤을 새우면서 함께 조형물을 완성했다. 이를 계기로 ‘샘물중고등학교’는 해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 순례가 있는 4월이 되면 순례의 걸음을 형상화하여 설치작업을 해왔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도 전교생이 ‘천지창조’를 주제로 슈퍼그래픽(벽화)을 제작했다. 그리고 미술 전공반과 글짓기 수업 학생들이 힘을 모아 수필 모음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올해도 여러 학과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수업을 만들거나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경-과학-미술과’가 함께 하는 <노작과 서클 중심의 마음발 수업>, 교내에 이정표를 세우고 산책길을 만드는 <둘레길 프로젝트>, ‘성경-음악-미술과’가 연합하여 구약 시대 성막을 재현하는 <성막 프로젝트>가 있다. 이외에도 생태와 환경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열리고 있다. 파커 파머(Parker J. Palmer)가 제안한 대로 학생들이 직접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과 지식의 지식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샘물중고등학교’의 캠퍼스는 비교적 크고 평범하다. 산자락에 위치한 학교는 부지 구입과 토목 공사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아쉽게도 심미적 관점보다 사각과 직선의 실용적인 형태로 지어졌다.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가 주장한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는 말을 빌리면, 교육은 인위적이고 고루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네모난 교실과 만나서 더욱 굳어진다. 이런 화석화된 땅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고 지식의 향연과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일까? 그리고 사각과 직선의 배틀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문양을 직조할 수 있을까? ‘샘물중고등학교’는 이에 답하기 위해 학교가 처한 상황과 자원, 그리고 학교의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래 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과 배움의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섬기는 예수 제자’를 목표로 하는 ‘샘물중고등학교’는 ‘하나님을 알아감’, ‘섬기는 공동체’, ‘선한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핵심 가치를 어떻게 교육에 구현할 것인가? 이 물음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코로나 상황이 만나면서 급격하게 팽창되었다. 팬데믹은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면서도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탐색하게 만든다.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서는 협업과 변혁적 능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기독교대안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식교육을 지양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에 비중을 둘 것이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진단하고 창의적 활동과 소통 능력, 자율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과 공간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 교육의 조건을 충족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선행하여 기독교대안학교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과연 성경적 기준에 합당하며 교육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성경적 적용에 있어서는 성막 제작과 연구, 교육에 있어서 영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사역을 들 수 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가 말한 대로 최초의 성막 공사에는 디자인, 설계, 기술, 규칙 등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요구된다. ‘샘물중고등학교’도 성경적 통찰과 교육적 연구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그 역량의 성격이 가치 지향적이고 변혁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학교가 추구할 역량을 ‘전인격적 지식’, ‘공동체를 세우는 삶’, ‘선한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규정하였다. ‘샘물중고등학교’는 역량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로 교내에 다양한 창작 활동을 위한 메이커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기존의 메이커 교육이 주로 디지털 기술에 집중되었다면 이 학교의 메이커 공간은 아날로그

방식의 창작 활동에 비중을 둔다. 현재 미술실, 과학실, 목공실, IT 및 3D 프린터실, 사진 스튜디오, 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봉실, 도예 공방, 플라스틱 방앗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목공실과 텃밭은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노작 활동과 STEAM 융합 수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학생들의 제작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과 수업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물론 교육을 위한 논의의 주제가 공간에만 머물 수는 없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실제적 고민은 여전히 예산 운영, 학생 모집, 진학 지도가 일 순위일 것이다. 산적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교육과정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과 편제와 시간표를 고치고 교실을 해체하는 방식은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원만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기독교대안학교는 교육과정의 독립성과 소통의 유연성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샘물이 흐르다가 돌아가고, 다시 모여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육과 수업에 관한 고민을 나누면서 성장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힘, 그것이 기독교대안학교의 생명력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유승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기독교대안학교인 ‘샘물중고등학교’ 교감이다. 경계대에서 미술교육과 동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마치고 잠시 작가의 길을 걸었다. 기독교성과 대안성을 위해 ACTS에서 교육과정을 공부하였고, 성균관대 교육철학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예술과 노작을 통한 영성·인성교육과 학교 공간의 전환에 관심을 갖고 현장 연구를 하고 있으며,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적 융합 교육과정과 메이커 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이 있으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다.

기독교대안학교 박현수 별무리학교 명예 교장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최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여러 기독교대안학교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따라서 특별히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의 대표적 리더이신 박현수 선생님(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장)을 모시고 기독교대안학교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그리고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한다.



일시 & 장소 2021년 6월 7일(월), 12:00.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인터뷰어 박동열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정리 & 사진 석중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박동열 오랫동안 공립학교 교사로서 재직하셨고, 또 '교사선교회' 소속으로 많은 선교와 양육의 열매도 맺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독교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하셨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박현수 저는 공립학교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학생들 및 교육대와 사범대 학생들의 제자훈련을 섬겼는데요. 기독교대안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교회에 연결해 주곤 했는데, 훗날 그 학생들을 만나면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전과 같이 살고 있는 점이 마음에 많이 걸린 것입니다. 둘째,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학교 현장에서 전도와 양육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장차 우리 사역에 한계가 올 것이 걱정되었지요. 결국, 다음 세

대의 기독교적 양육의 비전은 공립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대안학교를 세우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미션스쿨들이 이미 존재했지만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공교육과 다를 바 없었기에, 기독교대안학교만이 교육과정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해서 그런 비전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비전을 나누고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더불어 사표를 내고 별무리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박동열 기독교대안학교를 섬겨오시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던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박현수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따라갈 기독교대안학교 모델은 없다고 보았기에 스스로 만들어가기로 했습

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우선 기독교대안학교 교육과정을 약 10년 동안 연구했어요. 또 직접 한동대와 고신대 석박사과정에서, 일부는 유학까지 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안학교와 공립학교의 가교역할을 하자는 꿈이 있었고, 우리 교육과정이 장차 공립학교로까지 스며들게 하자는 비전이 있었는데요. 저는 현재 별무리학교가 그 꿈과 비전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보람은 맞춤형 학점제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잘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수업은 학교가 개설하기도 하지만 학생들 자신이 수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교수진들도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멘토들이 있고,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 쿼터당(1/4학기)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강좌가 계속 돌아갑니다. 별무리학교는 2012년 48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3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박동열 그렇다면 선생님, 기독교적 교육도 좋지만, 아이들이 성장단계에 따라서 배워야 할 공적 지식도 있고 입시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접목이 가능한 것일까요?

박현수 입시는 모든 기독교대안학교들의 공통된 문제가 분명한데요. 우리는 고민 끝에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입시교육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입시교육은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고 성공주의를 추구하게 만들며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따라 가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대안학교의 본질은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서 세상과 다르게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시를 전면적으로 포기하면 어느 학부모가 학생들을 기독교대안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대안은 현실 속에서 입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면서, 입시교육보다 결과적으로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신앙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더 기여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별무리학교는 다행히 1기 학생부터 입시교육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갔고, 대학도 수시전형으로 많이 갔으며, 대학에 가서도 학생들이 잘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학과 성적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선한 영향력, 리더십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박동열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안학교들이 숫자도 많아졌지만, 그 유형도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께 그 학교들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현수 유형은 대략 법적으로 보자면 ‘인가형’과 ‘미인가형’이 있고요. ‘인가형’에는 다시 ‘공립형’과 ‘사립형’이 있습니다. 또 공립형에도 ‘초중등교육법’ 60조 3항에 따른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은 곳과 ‘특성화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인가를 받았어도 ‘인가대안학교’는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또 도시에 있는 ‘통학형’과 시골에 있는 ‘기숙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통학형 학교들은 도시에 대부분 위치하여서 아무래도 도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 사회의 문화라든지 현상을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박동열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책위원장으로서 관련법제정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법제화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계기,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수 법제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때 대안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세금을 내는 문제였어요. 그중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법대로 내고 버틸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10%를 내는데, 5년 소급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익, 심지어는 십억 정도 나오면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대안학교가 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각종학교’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인가형 대안학교는 인가기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때문에, 법은 생겼지만 실제로 인가받을 수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둘째, 별무리학교처럼 인가기준을 다 충족했음에도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도 있었어요. 인가학교가 되면 교사선발권, 학생선발권이 모두 없고, 심지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지요. 그러면 공립학교에서 사표를 내면서까지 학교를 세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015년부터 전문가들, 법조인들,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제화를 준비했고 21대 국회에 와서 마침내 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2월 19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일은 올해 1월 13일이었기에,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부터입니다.

박동열 그래서 현재는 후속 시행령을 함께 준비중이지요?

박현수 네, 1년 안에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서 교육부에서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부와 ‘민관협의’라는 것을 2016년부터 함께 가동해 왔습니다. ‘민관협의’는 교육부 대표, ‘기대연’(기독교대안학교연합) 대표, ‘대안교육연대’ 대표, 그리고 이 법 제정

에 처음부터 관여했던 두 분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육부와 잘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준비해 가는 과정도 그 연장선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동열 그 시행령에 담긴 대강의 내용, 그리고 그것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박현수 내용 중 큰 것은 등록 기준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이제 등록만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교육청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모든 학교가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등록 인허가 기준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등록 기준을 낮추는 것인데요. 대출을 끼고 있느냐, 자가 소유냐, 교사의 자격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등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을 지금 시행령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 교사선발권,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운영권 이런 것들에 교육청의 간섭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향을 시행령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원래 법의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기독교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기에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최대한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동열 현재 교육부와 참여하게 논의 중인 시행령 안의 이슈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박현수 그중 하나는 교사의 자격 문제입니다. 전에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교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대안학교의 특성상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필요한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도 필요하거든요. 이분들도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또 하나는 현재의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르면 대출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들에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면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 보기 때문에 대출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작은 학교들은 거의 임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교육부와 논의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동열 공감합니다. 한국의 교사자격증이 폐쇄적이어서, 또 교육재산을 가지고는 어떤 영리사업도 불가능하기에 충분히 예상됩니다.

박현수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교육부와 첫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사범대에서 키워내서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대안교육센터를 국가에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센터의 역할 중에 ‘교사연수회’가 몇 가지 들어 있거든요. 바로 그 교사연수를 현장에 넘겨라, 교사의 질은 현장이 책임지고 높이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지요. 두 번째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사를 키우는 교사자격증의 기준을 여기서도 만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교사자격증으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센터에서 맡고, 그래서 교사의 질을 높이자 이걸 요구한 거예요.

박동열 현재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직면하고 있는 함께 극복할 과제가 있다면 어느 것인지, 또 건강한 대안학교가 먼저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수 첫째,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교사의 질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 중에는 교사와 교육과정을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 일단 시작하면 저절로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결코 아니지요. 건강한 기독교대안학교는 반드시 교육과정과 잘 준비된 교사들과 더불어 교육 철학과 실천 방안에

일관성이 있어야 질이 담보됩니다. 또한 학생을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독교대안학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돕고 관리하는 ‘연합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기대연’ 사무국이 이미 있고 거기서 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너무 약해요. 이 역할이 캐나다의 사례처럼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가 연구소 형태든 아니면 센터 형태든 도움을 주며 질을 높여갈 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최근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직접 기독교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미 있는 학교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동역하거나 전문가 교수님들을 후원(지원)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열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은 월급 등 여러 근무 여건이 실제 열악한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떤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박현수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권위는, 물론 부모님들이 권위를 위임해 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로만 바라보면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 동안 교사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십시오. 끝까지 남아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커가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FAITH & LIFE

학자들의 기독교 문화 운동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우리는 운동권이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다른 학회와 가장 다른 면모는 '운동'을 한다는 점이다. 함께 모여서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상의 현상에 신앙을 대입시키도록 안내하고 훈련하며 때로는 도전을 던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학빠리' 근성이 있어서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책상 앞을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는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수와 학자들의 중심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연구와 교육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학자나 학생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할 필요도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과 세상을 보는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 학자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연구자는 학자이며 동시에 문화명령(창 1:28)과 선교명령(마 28:18-20) 그리고 대강령(마 22:37-40)을 실천해야 하는 신앙인인 까닭이다. 즉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돌보고 회복시켜야 할 뿐

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나는 '운동권' (?)으로 첫발을 디뎠다. 그 첫 만남은 1990년대 초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통해서였다. 1992년 혜성처럼 등장해 한국 가요계는 물론 대중문화 전반에 혁명을 일으켰던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회와 사회는 신세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한국에 최신 신앙을 전수해주던 서구의 기독교는 뉴에이지 사상의 위협 속에 처한 때였다. '신세대'(New Generation) 논쟁과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은 1990년대 당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울타리문화선교회'라는 문화선교단체의 간사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문화에 대해 생소했던 교회를 향하여 현대문화의 강력한 영향력과 문화선교의 필요성을 전파하던 시절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활동하

던 그리스도인 학자들과 만나 공부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했던 일은 내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기윤실' 안에 '문화전략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강영안, 신국원, 최태현, 송태현, 추태화 교수님 등 오늘날까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끌어 온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자 감사한 일이었다.

정치와 경제문제에 밀려났던 문화가 사회변화의 첫머리에 올라서자 언론과 방송은 배꼽티에서 영화관람등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문화 관련 이슈를 생산해냈고, 문화전략위원회의 교수들은 '문화연대'와 같은 진보적 문화운동가들에 맞서는 토론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IVP)에 나와 있다.

사회의 관심이 정치에서 문화로 바뀌면서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문화운동으로 돌아섰다. 특히 진보적 문화운동가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이론을 학습한다는 얘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실천과 더불어 깊이 있는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신국원 교수님은 그 때문에 미국 칼빈대학교로 문화를 공부하러 떠났고 나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안에서 "기독교 영화학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영화 비평" 등 기독교 학문의 변방에 있었던 영화에 대한 논문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쓸 수 있었다.

우리는 사상가들이며 또한 실천가들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또 하나의 실천은 '기독교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서였다. 김승욱 교수님(중앙대 경제학과), MBC 앵커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베이직 교회 담임목사), 역시 MBC 앵커 출신의 이인용 사장님(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총괄)과 함께 만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안에 디지털 문화를 선도할 젊

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미디어 교육인 동시에 1인 미디어 시대에 '거룩한 문화 게릴라'를 키워서 세상 곳곳에 침투시켜서 활동하게끔 하는 운동 차원의 일이었다.

2018년 13기까지 진행하며 기독교 세계관뿐만 아니라 미디어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또한 영상을 제작하며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며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실천을 이루려 했던 점은 앞으로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사에 기억할 만한 일이다. 당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일주일간에 걸쳐 국민일보 신입 기자들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세상을 그린 문화의 지도를 상상해보자.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얼마나 표시할 수 있을까? 세속화된 사회에서 기독교 학문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듯, 문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다. 서강대 종교학과와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한남대에서 문화연구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SFC 문화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화평론가로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문화 관련 사역을 전방위적으로 왕성히 펼치고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더 나은’ 학교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나의 단출한 이력에도 교육 관련 경력이 한 줄 적혀있다. ‘예수향남교회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도 교육 관련 종사 이력으로 쳐준다면 말이다. 학부에서 신학을, 대학원에서는 인류학을 공부한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해 달라고 한다면 군말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지만, 기독교대안 학교에 대해서라면 약간은 할 말이 있다. 내가 2년 반 동안 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가 ‘기독교 학교’(가명)라는 기독교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내가 맡았던 초등부는 약 100명의 3, 4학년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매주 한 시간, 길어야 두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설교,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공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다. 나를 아이들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었던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3, 4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애 취급’은 금물이라는 것. 진심으로 아이들을 ‘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거리를 둔다. 둘째, 그러나 이 친구들은 여전히 똥이나 코딱지가 등장하는 더러운 이야기에 매우 격렬하게(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설명하자면 복잡한 어떤 사연으로 인해 교회에서 내 별명은 ‘김재똥 전도사

님’이었고, 아이들은 ‘김재똥 전도사님’에게 스스럼없이 마음을 잘 열었다. 그 별명 덕분에 나는 초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아이들의 뇌리에 지금까지도 깊이 박혀있다.

모든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신앙의 전수’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뼈아프게 절감했던 것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지고 신앙의 전수는 턱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은 훨씬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튜브와 SNS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 남사스러운 별명까지 이용해가며 몸을 던지는 한 전도사의 눈물겨운 몸부림이 기특하고 가상하긴 하나, 그 어색하고 안쓰러운 몸부림에 아이들의 신앙교육 전부가 맡겨진 것만 같은 상황이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참을 무기력함과 패배감에 시달렸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스마트폰과 SNS를 달고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려거렸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무작위로 난무하는 알고리즘의 바다에서 하루에도 몇 시간이고 즐겁게 헤엄을 치는 아이들.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일주일에 한 시간 밖에 안 되는 예배 및 설교 준비의 의미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줄 최고의 해결책으로 찾은 것은 '가정'이었다. "만약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주일에 들은 한 시간짜리 설교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대화하고 적용해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미션을 만들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매주 나눠줬다. 미션에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효과는 굉장했다. 처음부터 약 20%의 참여율을 보였던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이 꾸준하게 미션을 수행해 줬다. 참여율을 더 올리기 위해 그런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공개적으로 시상하기로 했다. 초등부 예배가 마친 뒤 광고 시간, '하나님의 가정' 미션을 일정 횟수 이상으로 수행한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 순간 나는 알아챘다. 이 아이들 중 거의 전부가 기독교 학교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나머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앉아서 박수를 쳤다.

언제부터인지 나는 우리 부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두 부류로 구분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기독교 학교 아이들과 일반 학교 아이들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기독교 학교 아이들은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 성경 지식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고, 자의든 타의든 참여적이며, 문화적으로도 교회 친화적이다. 실제로 '저 친구는 기독교 학교 아이일 거야'라고 예상하면 거의 다 맞다. 그런데

종종 예상을 비껴가는 친구들이 있었다. "너 기독교 학교 다니는구나?" 하고 물으면 명랑하게 "아니요? 저 OO초등학교 다니는데요?"라고 답하는 아이들. 소수 이기는 하지만 일반 학교와 기독교 학교 사이에 그어진 엄연한 경계를 허무는 그런 아이들 말이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나은' 기독교 학교 학생이라고나 할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 저 아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늘 한결같이 '가정'이었다.

'김재똥 전도사님'으로 사는 동안, 나의 임무는 모든 부류의 아이들을 '더 나은 기독교 학교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 고민의 핵심에는 늘 가정이 있었다.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정의 힘이 신앙교육에 얼마나 절대적인지 더욱 절감했다. 기독교 학교 아이들은 분명 특별하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특별함은, 기독교 학교의 특별함보다는 그들이 속한 가정과 부모의 특별함에 더욱 근원적인 빛을 지고 있다. 신앙이 빠진 가정은 맹목적이고, 가정이 빠진 신앙은 공허하다. '김재똥 전도사님'으로 살며, 더욱 그렇게 믿게 되었다. 가정이야말로 신앙교육의 핵심이며, 가정이야말로 가장 고되고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FAITH & LIFE



 글쓴이 김재완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이다. 총신대 신학과 학부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예수향남교회 교육 전도사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빈민 선교, 대안을 꿈꾸며

홍성우 (소망을찾는이교회 전도사)

나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빈민들을 섬기는 '소망을찾는이교회' 전도사이다. 현장 사역자로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물음은 이런 것이다. "선교하지 말자는 것인가? 복음과 그 전파의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존중의 행위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빈민들을 선교하는 주체로부터 타자화하고 그들의 관습과 가치관을 죄악으로 규정한다 해도 그것을 상쇄할만한 희생과 애정과 열정적 말씀의 섬김과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상관없지 않은가?" 확실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한다. "어떤 경우에도 타자성을 파괴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복음 선포는 없는 것일까?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에 기초하여 필자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론의 대안적 방향을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제시해 본다.

첫째 단계. 우리에게 선교는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우선 그 선교를 전제하지 않은 타인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것이 어떠한 의미로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내려놓고 빈민들의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 대해, 삶은 어떠해야 한다는 신앙적 판단과 우리 자신이 이들에 대해 느끼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듣고 사실을 그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단계. 교회는 "빈민들에게 뭘 해 줘야 하는

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존 선교에 느낀 불만이 무엇인지, 어떤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최대한 하나하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는 자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그들 앞에서 죄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인식에 부정과 긍정이 충분히 균형 잡힐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어설픈 긍정은 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그 대상이 가진 조건으로만 긍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긍정은 결코 단순한 전도자의 동정과 애착심에 근거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여전히 경멸하면서도 긍휼과 사랑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단계. 우리가 가진 복음과 신학에 근거하여 대상자들의 삶과 특징에 대하여 긍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활용지점을 찾는 것이다. 복음의 기본 내러티브인 '죄와 구원'의 관점을 일단 보류하고,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지 않음을 이들의 구체적 특성과 삶의 이야기, 주변 상황의 조건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작업은 복음을 단순한 이신칭의만이 아닌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빈민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단계, 복음이 이들에게 ‘긍정과 환대와 찬사’의 소리로 선포될 때,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경멸의 측면, 스스로 강렬한 죄책감이 드러나 한탄하는 부분, 죄를 강하게 느끼는 부분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점’이다. 복음 전파 대상에 대한 복음 전파자의 의식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을 겪는 일이 먼저다. 이 부활을 겪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가 전도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긍정할 필요가 없다. 이때가 바로 십자가 사랑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주는 시간이 된다. 필자는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적 메시지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불신자 빈민들에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선교 대상에 대한 전도자의 인식과 신학의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전도자는 자신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이미 대상자의 삶의 내용과 자기 인식적인 심리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단계, 기독교의 복음, 즉 ‘죄와 구원’이라는 성경의 특수한 ‘자기 기술’(self-description) 이야기가 비로소 자유롭게 나누어져도 괜찮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단계에 의해, 이미 전도자는 빈민들의 세속성조차도 단순하게 그것을 죄악 된 모습으로만 가두어두고 볼 수 없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가 지향하는 거룩함과 경건의 새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함을 전파하되, 이 새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구성해 온 특유의 정체성을 꼭 배제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치된 ‘거룩성’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 줘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산다는 것, 즉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전의 자기 개성과 기질을 모두 버리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예배와 기도와 각종 신앙교육을 통해 각성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빈민들이 결국 거듭나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로 각성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하겠다. 우리는 빈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세속성,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세속성, 복음 바깥에 있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었던 사람들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세속성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만약 불신자 빈민들을 전도하는 불신자 빈민 출신 성도가 불신자 빈민들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비추어지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필자는 복음과 신앙 안에서 세속성을 버리거나 혐오하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속성이 복음의 내용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복음의 빛에 조명되었을 때, 빈민들은 복음 이전의 자기 삶조차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에 그들이 복음 바깥에 있는 대상자들과 자신을 여전히 똑같이 여기게 된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빈민 선교의 대안이다. 결국, 타자를 대상화하지도 않고 자기 회귀로 환원시키지도 않는 선교는 다음 같은 것이다. 즉, 불신자 빈민 출신 성도가 동료 빈민들과 달라졌으면서도 그 동료들로부터 같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선교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홍성우

서울역 근처 쪽방촌 빈민들을 섬기는 ‘소망을찾는이교회’ 전도사이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중이며 기독교인문학과 빈민목회 빈민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 중이다.

삶을 나누는 교사가 되기를

공현석 (푸른꿈비전스쿨 사회 교사)

성인이 되면 ‘학교’가 아닌 다른 단어들로 나에게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학교’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나에게 큰 복이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공교육의 대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의 한 갈래이자, 그중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는 나의 미래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이다. 그랬던 내가 ‘기독교대안학교’에 있게 된 것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2017년 군 복무 생활을 마친 내게 미국의 ‘기독교 학교’(Christian School)에서 보조교사 경험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저 그런 교사가 되지 말라”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멘토 선교사님의 추천 덕분이었다. 그 학교는 신기하게도 교회 건물을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주중에는 교회가 비어있기에 그 공간을 학교로 활용한 것이다. “운동장이 반드시 있고 전교생은 몇 백 명이 되며 각종 시설이 구비된 큰 건물이 있어야 학교”라고 생각했던 내 고정관념은 완전히 부서졌다. 그때 ‘학교’란 무엇인지, ‘교육’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학교도, 교육도 ‘공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 교사와 학생! 그게 다였다. 미국에서의 3개월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교회 누나의 추천으로 1년에 한

번 전국의 기독교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모인다는 ‘기대연(기독교대안학교연맹)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동역자 선생님들을 만났다. 티키타카하며 친밀한 선생님들의 모습과 학교 이야기를 하며 행복해지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은, 바로 ‘학교의 모습’이었다. 미국에서 학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이후로 내 마음속에 꿈꿔온 학교의 모습이 있었다. ‘교회를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전교생이 30명 남짓의 소규모 학교’. 그런데 그러한 학교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로서의 첫해, 사회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사회 교과를 연구하고, 연구한 교육안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었다. 우리 학교가 소규모이다 보니 각 교과마다 한두 명의 교사만 존재하였고, 그중에서도 사회과는 내가 유일했다. 혼자 연구해야 했다. 그리고 중1부터 고3까지 6개 학년을 모두 맡아야 했다. 거기에 내가 전공한 ‘일반사회’ 뿐만 아니라 ‘역사’까지 가르쳐야 했다. 감사하게도 군 복무 시절 장교로 복무하며 역사교육을 했던 터라 마음의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연구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연구할 시간이 빠듯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추가적인



수업 활동도 해야 했다. 대부분의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넉넉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나는 비상근(파트) 교사로 시작했던 터라 다른 수업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음을 먹고 이 세계에 맡을 들였기에 각오는 되어 있었고 큰 어려움은 아니었다. 다만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오후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일하며 ‘쓰리잡’을 했다. 집에 가면 녹초가 됐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하고 싶은 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재정적 어려움 외에 힘들었던 점은 ‘나의 부족함’이었다. 교과 지식은 연구하여 채울 수 있었다. 교과 지식의 영역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삶의 영역’이었다.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뉘야 하다 보니,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했다. 지극히 인간적인 나의 특기는 ‘게으름’이었다. 그래서 내 삶을 다 열어놓는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내 삶을 나누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를 시작한 첫해, 당시 우리 학교는 기숙사가 없던 터라 교장 선생님이 통학이 힘든 아이들과 함께 자취를 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사정상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고, 상황을 들은 나는 학생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다. 대학생 시절 CCC(한국대학생선교회) 활동

을 할 때, 간사님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학생들을 집에 불러서 밥먹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등 삶을 나누는 그 모습에 감동했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나는 우리 학교 형제 2명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삶을 나누며 행복했다. 부족함까지 다 드러내며 서로 채워가며 살았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함께 살지 않지만, 자주 놀러 와서 여전히 함께 삶을 나눈다.

지금은 더 이상 ‘쓰리잡’은 하지 않고, 담임교사에만 집중한 지 3년 차에 접어든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차근히 내 속도에 맞춰 부족함을 채우시며 지경을 넓히셨다. 첫해는 교과목에 더 집중했고, 두 번째 해는 내 반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교사였다면, 세 번째 해가 되면서는 전교생을 내 반 아이들로 여기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살지 않는 아이들 모두와도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사가 되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교무실에 찾아와 이야기하며 논다. 하교하고서도 심심하다고 연락이 온다. 고민이 있다고 먼저 찾아준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습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지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삶을 나누는 교사이기를 기도하고 꿈꾼다. **FAITH & LIFE**



글쓰기 공현석

인천에 있는 기독교대안학교인 ‘푸른꿈비전스쿨’ 사회 교사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학부과정을 졸업했고, 학부 과정 중 일반사회교육 전공으로 교직을 이수했다. 미국의 Dove’s Landing School에서 3개월 동안 보조교사를 하며 기독교 교육의 꿈을 키웠고, 현재는 ‘소명 수업’을 연구하고 있다.

가장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숙제, 기다림

박지현 (새로남기독교학교 교사)

매일 해야 하는 일, 매주 해야 하는 일, 매년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한 학기가, 그리고 한 학년이 마무리되곤 한다. 늘 올해는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어느새 끝나버린 학급이 여섯 학급.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7년 차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 글을 제안받았을 때 내가 기독교대안학교 현장에서 가장 도전받고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올해로 3번째 6학년 아이들을 담임으로 맡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3년 전 3학년일 때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고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어 올해 유독 수월하다고 느끼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분명 좋은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고충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나는 답답한 것을 못 견디는 급한 성격을 가졌다. 질문을 던졌을 때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잠시 한눈팔다가 “예?”라고 반문하는 한 아이를 볼 때 내 마음속에는 활화산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씨름이라도 하고 퇴근하는 날이면 분명 공간이 바뀌어 집에 있음에도 마음 한편에 눌러붙어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조각들이 있다. 왜 그랬을까. 왜 아직도 그럴까. 등등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하다가 마가복음 4장 26~29절에 등장하는 부지 중에 자라는 씨 비유를 읽으며 마음을 추슬렀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올해 유달리 선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기다림’과 ‘인내’의 필요성이다. 올해 3월 지인으로부터 화분을 하나 선물 받았다. ‘포도 히아신스’였는데 꽃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있는 상태였다. 예쁘게 방울방울 꽃이 이미 핀 상태로 선물 받았다. 이 꽃망울들은 꼭 내게 맡겨진 학생들 같았다. 잘 키워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물도 주고 정성 들여 가꿨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더니 꽃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말라가는 것이 아닌가. 제발 죽지 말라는 마음으로 계속 들여다보며 키웠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때마다 물주고, 심지어 분갈이도 시도하면서 애정을 주었지만, 6월 말이 된 지금 결국 이파리조차 다 떨어지고 뿌리만 남게 되었다. 뿌리를 화분에서 꺼내면서 ‘포도 히아신스’ 키우는 법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알고 보니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었다. 그래서 애써 꽃 피우려 해도 꽃이 피지 않았구나 싶어서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화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뿌리를 건조



한 곳에 잘 보관하면 내년 봄에 다시 꽃 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글에 희망을 담아 정리를 해놓았다.

기독교 교육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가르치고 물주는 이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함이라는 마음은 잘 성장하고 있는 식물도, 학생도 꺼꾸르트리기 쉽다. 내가 원하는 때에 꽃이 피길 바라며 아무리 물을 주고 보살피어도 때가 아니면 사실 그릇된 열정이 되기 쉬웠다. 재풀에 지쳐 어느새 실망감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 주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도 그걸 강요한다고 아이가 거기에 맞춰 따라오지 않음을 기억해야 했다. 씨가 열매로 맺히는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농부인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알고 낙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농부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장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내가 바라는 때는 아닐지라도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가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맡겨진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훈

련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날’에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심하며 힘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학교 교가에는 “내일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이 땅에 심는”이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맺고 계신다. 아직 1학기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동안 또 흔들리고, 휴화산인 마음이 활화산으로 되는 때도 분명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속도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 없는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이 땅에 심으며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지현



대전 새로남기독교학교 초등 교사이다. 그리스도인 교사의 사명을 품고 2015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드라마/영화 : 〈스카이 캐슬〉, 〈팬트하우스〉, 〈미나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교육은 분명 백년지대계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왔다. 고전에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곡식은 하나를 심어 하나를 수확하는 것이라면, 나무는 열을 수확하고, 사람은 백을 수확한다.” 교육을 자연에 순화하면서 땀 흘려 씨뿌리고 열매 거두어 사는 농사에 비유한 것이다.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 농사’임에 틀림없다. 교육은 백 년 앞을 내다보며 진리(Veritas)와 공정(Justica)에 맞게 사람을 키워야 하는 국가적 운영에 속한다. 여기에서 교육 복지도 나오고, 기회균등도 실천되어야 하며, 양극화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마련된다.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현 세대의 왜곡된 교육관

그런데 무슨 일인지 교육이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희한한 세태가 보인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교육에 열내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미 대입 준비를 시키는 학원이 생기지를 않나, 중고등학생 중 학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없을 정도다.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만이 아니라, 예체능까지 망라한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하면 밤늦게 집에 와서는 파김치 상태로 잠에 폴아떨어진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비극적 점수대에 속한다. 이 모든 왜곡이 명문대 합격이라는 최종 목표에 맞춰져 있다. 대학입학이 인생 성공

이라는 공식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라니.....

미디어를 달군 드라마 〈스카이 캐슬〉, 〈팬트하우스〉는 이런 풍경을 여실히 보여줬다. 물론 일부 상류계층의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의



피라미드 구조를 상징하기에 사회 비판적으로 보아야 하겠다. 드라마는 서울 강남의 어떤 특정한 풍경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이미 성공 지향적 교육관이 전염병처럼 널리 있다. “그렇게 공부해서 일등 하겠니, 그렇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겠니.” 수험생만 듣는 말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자주 듣는 추궁이다. 그들의 말대로 ‘왕 짜증나는 잔소리’일 것이다. 요즘에는 ‘개 짜증’이라는 말도 들린다. 우리의 고뇌는 어서 속히 청소년들을 이런 교육 지옥으로부터 구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나리〉는 잔잔한, 그러나 깊은 삶의 애환이 깃든 영화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민 간 한국인 가정의 이

야기. 어느 대사가 인상 깊다. 쓰레기가 타는 소각통을 보며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한다. “저것 보라. 사람이 쓸모없으면 저렇게 태워진다.” 크게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의 회한이 담긴 고백이다. 그 속에는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무가치한 존재로 사라질 것이라는 의식이 배어있다. 무한경쟁에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가치라는 현 세태를 반영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시대 교육현장’(김상희 정치학박사)이라 하겠다.

‘조국 사태’의 교육적 상징성

우리 사회를 달구었던 시사 사건 중 ‘조국 사태’는 역시 상징적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언급하자면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 증폭되어 사회문제화가 되었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부모 찬스’라는 말이 떠돌더니 마치 시사용어처럼 돌아다닌다. 취업이나 진학에 이른바 ‘부모 뺨’을 활용하는 것이다. <친구>라는 오래전 영화(2001)에 나온 한 대사가 이십 년 후인 2021년에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한 듯하다. “조폭인데 예.” 순간 선생님이 당황하며 놀라는 모습이 떠오른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사태’라는 시사사건의 대명사가 되도록 관심을 끈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 글은 정치평론은 아니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른바 ‘부모 찬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언급한 드라마 배경에는 ‘학중’(학생부중합전형)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평범’이나 ‘상위’ 정도로는 어렵었다. ‘학중’에서 신계(神界)의 이력을 제출해야 합격 보장이라는 의식, 그것이 문제였다. 최고 ‘학중’의 포트폴리오를 갖추려면 평범하게 공부해서는 안 되기에, 이러저러한 경력을 위해서 부모의 지위와 권력을 잠시 활용한다는 점이다. 공정에 위배된다는 국민 눈높이에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이다.

교육에 창조 질서를 세워야

교육은 과연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하는가? 교육철학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새로운 발견에 따라 교육 방법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아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은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은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 즉 교육은 기술(technic)적 성격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지 않는 말아야 한다. 특정 세력에 휘둘려 교육관이 왜곡되어서는 더욱이 안 된다. 공산주의의 유물론, 사회주의의 집단체제,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등에 영향받은 인간관, 교육관은 인류사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겼다. 이들에게 교육은 필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인간 개조를 서슴지 않는 인위적 기술로 작동했다.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art, Kunst)이어야 한다. 진정한 예술로서의 교육은 사람을 도구로 다루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는 창조 질서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3:16a). 우리 시대의 교육이 하나님 사랑에서 다시 꽃피운다면 문화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인간 회복 역시 가능하리라 본다. 교육의 명제는 명확하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시덤불과 엉덩퀴를 제거하고 땅이 소산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이루어지리라.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혁주의 미술교육자 한스 로크마커가 남긴 유산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종교개혁 이후 예술적 유산의 중요성을 조명한 미술사 학자로 네덜란드의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 1922-1977)를 들 수 있다.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에 해군 장교로 참전하였다가 나치에게 잡혀 우크라이나 감옥에 구금, 그곳에서 성경을 접하였으며 개혁교회 의 철학자 메커스(J. P. A. Mekkes)를 만나 개혁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다. 메커스를 통해 알게 된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와 카이퍼(Abraham Kuyper),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는 훗날 그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의 연구 방법론은 다른 미술사학자들과 구별된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인 양식사적으로 미술에 접근하는 대신 어떤 철학과 사상이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정신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예술가의 철학적인 사상이 그림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이해 틀이었고 이를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고갱과 19세기 미술 이론>에 담았다. “로크마커는 미술사를 철학과 종교 역사의 직접적인 반영으로 보았다. 이것은 미술을 양식적 발전의 연속으로 보던 상황에서 꽤나 신선한 것이었다.” 그의 제자 존 월포드(John Walford)의 말이다.



학생들과 토론하는 한스 로크마커

로크마커의 생애를 보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1964년 자유대학교(VU)에 미술사

학과 교수로 초빙을 받아 12년간 봉직하게 된다. 이 무렵 로크마커는 스위스 라브리(L'Abri)를 이끌었던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와 의기투합하여 자신의 자택을 '네덜란드 라브리'(Dutch L'Abri)로 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다.

“기독교와 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로크마커의 집에서 매일 모임을 가졌다. 과제도 상당히 많이 내주었다. 우리는 문화, 교회의 예술에 대한 인식, 도상학 등과 관련한 미학에 대해 토의하였다. 소박한 거실에는 재즈와 블루스 레코드 컬렉션이 들어차 있었는데 강의 후에는 종종 레코드를 틀어주기도 했다.”(데이브 헤게먼, Dave Hegeman)

강의는 집뿐만 아니라 미술관으로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에 레이크스 미술관을 매주 관람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맨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차츰 그러한 시간이 작품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로크마커는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데 매우 능숙했다. 그런 질문을 통해 그는 스타일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탐사하고자 했고 그것은 썩 흥미로운 시도였다.”(폴 클라우니, Paul Clowney)

그의 지론은 “당신이 아는 것을 보는 것이다”(You see what you know)라는 것이었으며, 현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작가가 표현하는 바와 그 이면의 사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진지한 토론과 이와 관련



사후에 발간된 한스 로크마커의 전집

된 과제를 수시로 내주어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미술품을 해석할 때 학생들이 기독교적 준거 체계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학자로서 훈련을 받았으나 그의 지식을 실천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힘썼다. 자유대학교 재임 시절 전부터 그는 스위스 라브리를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강연과 토론을 했고 나중에는 밴쿠버 레전트 칼리지(Regent College)의 서머스쿨, 영국의 미술관과 대학 강의, 세미나 발표를 진행했다. 또 미국의 각 지역을 순회하며 기독교 칼리지와 '인터버시티 칼리지 펠로우십'(InterVarsity College Fellowship)에서 미술과 현대 음악, 문화, 그리고 신앙에 관해 토론하였다. 로크마커는 자신을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당시 서구의 복음주의 국가에서는 예술을 등한시했는데 오히려 로크마커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를 독려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동면(冬眠)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는 현대미술을 조롱하지 않고 현대미술이 표방하는 철학적 중요성을 파악해내고 염세주의적인 메시지를 밝혀내며 이를 청중들에게 전했다. 청년 시절 '트라우'(Trouw)지에 평론을 기고하였던 경험을 살려 그는 최신 조류와 접촉하고 비전문가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 그는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의 '비극적 영웅'과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추상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선 우호적이었으나, 피카소와 몬드리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해프닝'(Happening)과 같은 현대미술의 선구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로크마커는 "모든 이론

을 파하며 하나님 이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고후 10:3-5)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영국의 화가 폴 크라우니, 피터 스미스, 폴 마틴, 케이트 로스, 영화배우 니글 굿윈, 미국의 조각가 테드 프레스콧, 미술사학자 월 포드, 신학자 빌 에드가와 백비, 윌리엄 더니스, 화가 크리스 앤더슨, 네덜란드의 마르크 데 클라인, 반 룬, 토론토의 메리 모비, 테나 에이레스, 로저 팬먼, 웨인 로사, 메리 애쉬크로프트, 베티 스펙먼 등이 있다. 경건주의에 빠져 그림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학생에게 다시 붓을 들게 한 일도 있었다.

그는 예술가들을 섬긴 그리스도인으로 세찬 풍랑의 현실 속에서 살아갔다. 그 덕분에 '예술적 팔레스타인'에 처해있던 예술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미에 관심을 돌리도록 했다. 그리하여 개신교에서 그동안 간과해온 예술도 문화명령의 한 영역임을 환기시켰다. 미국의 미술사학자 제임스 로메인(James Romain)은 자신을 로크마커의 '소명의 손자'로 소개한 바 있다. 자신의 스승인 휘튼(Whitten) 대학의 존 윌포드가 로크마커에게 수학했으므로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처럼 그가 세계 각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멘토로 남게 된 것은 예술 참여를 통해 문화의 세속화를 막으려는 그의 열정적인 학자적 소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에 있을 것이다. 교회가 '동력의 산실'이 아닌 '기관'이 되어가는 고통스런 현실을 보면서 문득 그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하나님의 품 넓은 지혜 안에서 하나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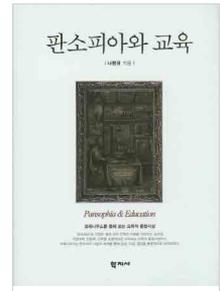
이경건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필자는 대학생 때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필자는 일반대학원에서 교과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수업을 들으며 교육학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돌아보고 나니, 세속 교육학에 비추어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 근대 교육학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분야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세속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기독교 교육이 따라가는 형국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 심리학 및 교육학의 한 사조를 이룬 피아제(Jean Piaget)는 아동의 생물학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의 단계를 연관시켰는데, 이는 종교적 믿음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아제는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에 대한 헌정 논문을 쓸 만큼 그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피아제에 따르면, 코메니우스는 교육학을 독립된 학문으로서 정립한 최초의 사람이다. 코메니우스는 당시에 이미 정신 발달, 교수 방법의 심리학적 기반, 학교와 사회의 관계, 교육과정 및 교육을 위한 행정 기관의 조직 필요성,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국제 기관 등에 관한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가 17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갖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은 있지만, 피아제는 코메니우스의 교육학적 질문이 영구히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화두를 던진다고 말한다. 실제로 유네스코(UNESCO)는 1957년에 코메니우스야말로 유

네스코 정신의 주창자이자 ‘현대 교육 및 세계 이해의 사도’(apostle of modern education & world understanding)라고 상찬한 바 있다. 예컨대,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평생교육은 온전히 코메니우스에게서 기인한다. 전인교육에 대하여는 선구자들이 많았지만, 이에 대하여 포괄적인 기독교적 재해석을 가한 것은 역시 코메니우스라 할 것이다. 그 사상의 폭과 깊이로 볼 때, 그리스도인 교육자로서의 코메니우스는 신학자로서의 칼뱅에 비견할 만하다. 생각하건대, 오늘날의 세속 교육학을 넘어설 기독교 교육의 부흥은 코메니우스 사상 연구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코메니우스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기독교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고까지 감히 말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코메니우스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숙중 교수(전 강남대)와 정일웅 교수(전 총신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라틴어로 쓰인 코메니우스의 저작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기초 학문적 작업에서부터 학술서 및 학술지 논문 출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을 조명하였다. 한편 나현규 박사의 <판소피아와 교육>은 그 뒤를 잇는 코메니우스 연구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서 근무하는 목회자의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이 유수의 학술서 출판사인 학지사에서 출판된 것만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



〈판소피아와 교육〉 나현규 / 학지사 / 2015

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그만큼 〈판소피아와 교육〉은 체계적인 논증을 통해 코메니우스 교육 사상 전반이 ‘판소피아’(Pansophia, 범지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판소피아와 교육〉은 코메니우스가 진단하듯이 ‘미로’(labyrinth)와도 같았던 17세기 유럽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판소피아’를 재조명하고, 그것이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의 전체와 부분을 구조적으로 잇는 핵심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판소피아와 교육〉은 코메니우스가 말하였던 ‘판소피아’가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로고스(logos),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Omnis, Omnia, Omnino) 가르친다는 표어로서 요약되는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난 후에야야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소피아와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토대로서의 〈대교수학〉(Didactica Magna), 원리로서의 〈빛의 길〉(Via Lucis), 순서로서의 〈세계도회〉(Orbis Pictus), 그리고 방법으로서의 〈범교육학〉(Pampeadia)에 대한 텍스트 구조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삼는다. 코메니우스의 대표 저작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판소피아’ 사상은 근원이자 본질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리고 대상이자 실재로서의 만물에 대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 토대임을 밝힌다. 삼위일체 하

나님으로부터 도출된 삼원성의 원리로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제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코메니우스 저작의 특징이다. 독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교육, ‘읽’과 ‘됨’과 ‘함’이 일치하는 교육,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교육 등을 지향점으로 얻을 수 있다.

필자가 대학원에 입학한 첫 해, ‘과학교육역사’ 과목의 기말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던 중 〈판소피아와 교육〉의 우수학술도서 선정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주저 없이 책을 구입한 필자는 〈판소피아와 교육〉의 머리말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고 말았다. 〈판소피아와 교육〉의 머리말과 내용 전체가 신앙 서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품 넓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판소피아와 교육〉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공부가 가능하다면, 나도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얻었다. 이 책을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추천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명권

서울대 화학교육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부 시절 서울대 화학교육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했고, 서기연(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전국기연네트워크 대표, 대학원 시절에는 서울대기독교대학원생모임 대표, 대학총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삶'을 위한 교과서

이래신 (좋은교사운동 국제교육협력위원회 개발협력소위원장)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의 저자 유경상 교수는 벤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1회 졸업생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교과서의 구성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만든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이다. 교과서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교회나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교육과정이 강한 나라는 교과서가 매우 강조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과서의 형식에 익숙하기 되기 때문에 이 책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수록 책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야 수용성이 크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큰 장점이다.

또한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맞는 흥미를 주고 재미있는 구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삽화와 활동들이 아이들 수준에서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배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은 조금은 어려운 용어이자 내용이 다. 그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접근을 위해 흥미와 관심 위주 접근을 하면서도 활동들로 이어진다면 실제 세계관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명화(천지창조, 생각하는 사람, 최후의 심판 등), 6컷 만

화 그리기, 신문기사 형식 글쓰기, 이미지 트레이닝 체험하기, 나뭇잎 QT, 포스터 만들기, 신문에서 찾기, 찌그린 캔 퍼기 마술, 미라클 영화보고 예수님께 편지 쓰기, 가라사대 게임, 상자 만들기, 액션 플랜, 노래 가사 만들기, 신문 만들기, 마인드맵, 효도 쿠폰 만들기 등이 있다.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세계관을 익히기 쉽도록 각 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 요소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힘’은 어려운 지식을 쉽게 전하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생각’ 혹은 ‘세계관’이라는 인식의 틀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수준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이들 수준에서 다루었던 교재들이 인식의 전환 없이 “성경의 삶을 살아라!” 하는 식의 율법적 접근이었다면, 이 책은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하여 주인공과 자신의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고 공감을 통하여 단지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접근을 하면서 전인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생각 코칭’(TAP:Think, Action, Product)은 이 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수이다. ‘생각 코칭’은 저자의 다른 저서 〈크리스천 씽킹, 카리스〉(2011)에서 소개된 CTT(Christian Thinking Tool)와 더불어,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계관과 관련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유경상 / CUP / 2013

된 문제를 자신의 수준에서 깊게 고민하게 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추어 보게 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돕는 방법이다.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인식의 틀을 바꾸어보는 '생각 코칭'을 경험하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문제와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을 하나님 나라 관점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부는 '생각은 힘이세요.' 2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3부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로 되어있다. 1부는 세계관을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생각'으로 표현하고, 먼저 세계관의 의미와 힘에 대해 생각해 본다. 2부는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 죄, 죄의 열매,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실제 문제인 공부, 친구,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 3부는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은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이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위한 고민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1단계는 '마음발 갈기', 2단계는 '생각 씨앗 심기', 3단계는 '생각 나무 가꾸기', 4단계는 '생각 열매 거두기' 그리고 마지막은 '미션'으로 되어 있다. 명칭부터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사용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하게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주제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금산의 '별무리학교'에서는 이 책을 기독교 세계관 교재로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다. 필자 역시 한 학기 동안 '별무리학교' 중등과정 1학년인 청소년들을 이 책으로 가르친 바 있다. 그리고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한 저자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한 교재로 가장 좋은 책임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필자는 이 책을 많은 기독교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독교 세계관 교재로 적극 추천한다. 부디 이 책으로 가르침을 받은 다음 세대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래신

좋은교사운동 국제교육협력위원회 개발협력소위원장이다. 교육선교를 위해 기독교사립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현재 CTC에서 기독교 세계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연구하고 있으며, 몇몇 대안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미 실행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국내외 학교와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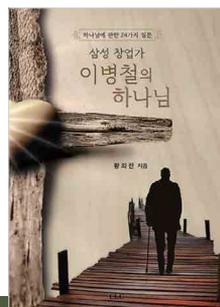
떡으로 배부른 이의 영적 기갈을 해결하다

박상봉 (서울 평강교회 담임목사)

삼성 창업가 호암 이병철 회장이 생애 말에 '신에 대한 질문 24가지'를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그의 사후 25년이 지난 2012년이였다. 질문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신부로부터 질문서를 넘겨받은 고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냄으로써 이 사실은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이병철 회장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실태를 망라하는 궁극적으로 기독교계에 질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답변을 내놨다. 어떤 이는 신문에 전면광고로, 어떤 이는 언론과의 대담 형식으로 답했다. 철학자와 평신도까지 나섰다. 이들은 모두 질문자가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질문 자체에 의미를 두고 답을 시도했다.

<삼성 창업가 이병철의 하나님>(이하, <이병철의 하나님>)은 저자 황의찬 목사가 마찬가지로 이미 고인이 된 이병철 회장의 남긴 질문과 교감하면서 그 답들을 모색한 과정의 결실이다. 저자는 이 회장이 남긴 자서전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여러 권의 평전에 여실히 드러나는 이병철 회장의 생애 굴곡을 찾아내었고, 그 지점에 맞을 내리고 말을 걸었다. "그와 점심은 같이 할 수 없지만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며 책을 시작한다. 작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플라톤의 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야기 프레임으로 첫 장을 연다. 이 회장이 남긴 24가지 질문에 답하는 일은 그 자체가 기독교 변증이다. 첫 질문이 하나님

의 존재 증명이다. 질문자는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창조론, 진화론, 신정론, 성서론, 종교론, 내세론, 교회론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열된다. 자칫 고도의 신학 이론이나 교리로 답하기 쉬운 질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학문적 혹은 형이상학적 답변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질문자의 삶으로 해답을 모색한다. 책을 펼치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재벌 회장의 화려한과는 사뭇 거리가 먼 인간 냄새에 찌든 부자간의 특별한 재회 장면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한다. 저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대응적으로 존재하는 동일성이 무수히 많다는 '유비'에 천착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행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남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닮는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속성을 띤다. 저자는 피조물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속성으로 질문에 답한다. 한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평생 불신자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24가지 질문을 남겼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과 함께 신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쟁점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이병철 회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먹지 않았지만, 세상의 '떡'으로는 누구보다 배부른 사람이였다. 평생 아무 고난도 없고 번영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의미하다. 만일 그런 이가 있다면 이병철 회장은 첫손가락에 꼽힐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병철의 삶을 깊이



〈삼성 창업가 이병철의 하나님〉 황의찬 / CLC / 2021

들여다보면서, 그가 누린 번영보다 그가 당한 고난이 훨씬 더 컸음을 감지했다. 특히 1966년에 촉발된 사카린 밀수 사건은 이 회장의 일생에 가장 큰 상흔을 남겼다. 바로 그 사건을 열개로 책을 써 내려감으로써 책 읽는 재미를 유발한다.

저자는 읽는 이의 흥미를 돋우는 한편 성경적 측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대답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기독교 신학이나 교리로서 뻘한 답을 내기보다는 저자만의 독특한 ‘이야기 신학’을 들고나온다. 저자는 이 책을 내기 전에 이미 5권의 책을 출간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필두로 장애인 자녀 둘을 키우고 하나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참척의 고통 중에 참회록으로 발표한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 신정론을 다룬 〈불어빵〉, 다윗의 범죄를 정면으로 끄집어낸 〈밤세바의 미투〉, 유신 진화론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 〈아담은 빅뱅을 알고 있었다〉를 내놓았다. 저자는 특별히 〈이병철의 하나님〉에서 자신의 신학을 총동원하여 혼신의 힘을 모아 답변한다. 지금까지 저자의 모든 책이 그래왔듯이, 이 책에서도 저자는 ‘이야기’로 반전을 시도한다. 책의 발단에서 등장한 ‘이야기’는 대단원에 이를 때 두 개의 거대 담론으로 나누어진다. 우주의 생성과 인류의 역사는 물론 개개인의 삶을 주도하는 ‘이야기’로서, 먼저는 절대자 하나님을 도외시키고 주어 없이 전개되는 이야기, 다음으로 전 과정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야기가 있음을 갈파하면서, 만

일 주어 없는 이야기에 속했던 독자라면 이제는 주어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한다.

저자는 〈이병철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독교 신자들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이고, 신자에게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거시며, 자기를 계시하는 분임을 드러낸다. 저자는 밖에, 멀리 계신, 상아탑과 신학자의 서재에 갇힌 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문을 판독하여 질문에 답한다. 신자든 불신자든 읽는 이에게 자기 삶에서 함께 숨 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한다. 저자 특유의 신학을 시장바닥의 털털한 이야기 속에 넣어서 재미와 함께 신앙을 말한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독서로 권하고 싶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상봉

서울 망원동에 소재한 평강교회 담임목사이다. 홍신대 신학대학원과 동대학원(Th.M)을 졸업하고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복음의 이해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안양대 신학대학원, 순복음총회신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홍신대학교 교목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교회사 가이드〉(1994)가 있으며, 번역서로 〈차트로 본 구약〉(1996) 등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 성경적 문화 신학의 입장에서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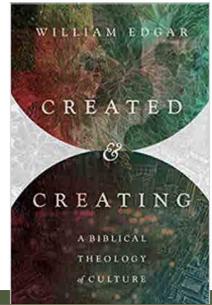
진실한 신자의 가장 큰 질문은 항상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대답이 상대적으로 명료한 도덕적 문제들은 그 관건이 지식이 아닌 능력에 달려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시대와 역사를 이어가면서 계속 연구하고 논쟁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신자다운 삶인가 하는 것이다.

저자 윌리엄 에드가(William Edgar)는 이 책에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문화참여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 어떤 의미에서 삶은 문화적 활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 책을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한 책이라 하고, 어떤 이는 기독교와 문화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가 붙인 부제가 이 책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은 저자가 붙인 '성경적 문화 신학'(A Biblical Theology of Culture)이라는 부제이다. 저자는 문화를 성경 신학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도이다. '문화'와 '성경 신학'이 그다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말은 아닌 까닭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 작업을 충실히 해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문화 연구의 발전에 대한 개괄적 소개이다. 이것은 다시 세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는 문화를 고상한 정신 예술적 업적과 동일시하면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마르크스

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를 권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문화 연구와 이해의 파편화라 할 수 있다. 인간론이 문화 연구의 중심이 되면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1부를 마치면서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와 이해 개진으로 신자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무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거기에는 비성경적 요소 또한 많기 때문이다. 1부는 너무 많은 내용을 짧은 지면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는 문화 연구의 최신 자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각주에서 풍부한 인용 자료와 참고 문헌도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2부에서 저자는 이른바 '콘트라 문덤'(contra mundum) 본문을 다룬다. 즉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듯 보이는 성경 본문들이다. 저자는 각각의 본문을 인접 문맥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다시 설명함으로써 그 본문들이 실제로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자 한다.

3부 '문화명령'은 저자가 정작 하고 싶었던 '성경적 문화 신학' 작업이다. 저자는 두 왕국 이론, 복음 전도와 문화 활동, 특별은혜와 일반은혜 같은 이원화된 구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신학자의 주장에도 반대한다. 이는 저자가 문화명령과 복음전파의 명령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Created and Creating : A Biblical Theology of Culture》William Edgar / IVP / 2016

엮혀 있는 하나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까닭이다. 저자는 그 증거로 창 1:28의 문화명령을 구속의 명령과 함께 등장하는 관련 성구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장차 번성하여 온 세상에 퍼져 왕 노릇 하리라는 약속은 창 1:28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며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약속과 본질상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구원의 언약은 그 안에 이미 창 1:28의 문화명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접근은 미묘하지만 선명한 차이가 있다. 즉 많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신약 교회의 출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뿐 그것을 창세기 1:28의 문화명령과 연관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렘 29:6에도 등장한다. 저자는 이 구절과 창 1:28의 표현상 유사함을 발견하고 렘 29:6을 문맥 속에서 문화명령과 연결시켰다.

우리는 저자의 이러한 정교하게 설득력 있는 논지가 아니더라도, “구원은 신자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곰곰 생각해 보면, 구원과 문화명령이 분리할 수 없이 엮혀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자가 삶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에 참여하여 그것을 누리거나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명령이 타락 이전과 이후에 변함없이

작동한다는 증거이다. 저자도 인용한 월터스(Albert Wolters)의 표현을 빌자면, ‘구조와 방향의 문제’이다. 문화명령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다.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임을 지적한다. 물론 구원은 그 이외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화명령의 회복이 구원의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저자는 문화명령의 원형, 타락된 형태, 회복된 모습을 다룬다. 인간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문화 활동은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다. 따라서 구원이 문화명령의 회복과 무관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 책은 여전히 ‘콘트라 문덤’이 만연하는 교회들에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동문교회 '학문과 신앙 통합모임'

권오병 (경희대 교수, <신앙과학문> 편집장, 동문교회 장로)

경기도 분당 야탑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손세용 위임목사)에는 주일 오후 2시에 '비전 예배'라는 특별한 모임이 있다. 2013년 시작한 비전 예배(총무 유재홍 집사)는 주로 3040세대 부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있다. 3년 전부터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대주제로 하는 강의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이브', '인체의 신비와 하나님',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 '명왕성의 비밀'과 같은 창조과학 강의뿐 아니라 '물', '불', '색', '맛', '향기'와 같은 강의로 자연 속 하나님을 음미하기도 하고, '수학과 성경', '평형', '마찰력', '중력', '자기력'과 같은 우주를 붙잡고 있는 원리들을 살피기도 한다.

강의 주제는 인문사회예술 분야도 망라된다. '축복의 사회과학', '심리학과 성경', '헨리 조지와 기독교경제', '길가메시 석판', '기독교문인들'(시인, 소설가), '연극공연', '발해의 십자가 신라의 십자가' 등의 강의도 이루어진 바 있고, '기후 변화', '빈곤', '환경문제', '이라크' 등의 주제들과 함께 잊힌 교회들을 돌아보는 'Hidden Christians' 등 매우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강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의는 다음 같은 세 가지 원리를 기조로 하고 있다. 첫째,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통합되어 있다. 둘째,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육과 번성에 유익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고 있다. 셋째,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시선과 은혜를 발견하는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기독교철학자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가 진술한 대로 '우주의 양상'(신앙, 도덕, 법, 예술, 경제, 사회, 언어, 역사, 논리, 감각, 생물, 운동, 공간, 수)들을 '자유롭게 선택된 창조행위'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강사는 비전 예배 참석자들이며 서로가 자신의 전공영역으로 강의안을 연구하여 만들고 나누고 있다. 30분 분량의 강의와 함께 30분 정도 QT 묵상 나눔도 병행하고 있어, 참석자 모두가 말씀을 나누는 기쁨도 누린다. 이 모임을 섬기고 있는 자로서 젊은 부부들이 변화하고, 또 습득한 내용을 자녀와 지인에게 나누는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보상을 받고 있어 감사드린다.

코로나 기간 비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으며 누구나 Zoom(회의 ID: 894 6197 5572)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안도 공유하고 있다. **FAITH & LIFE**

동문교회 '비전예배' 소감문

사해에 물길 여는 비전 예배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갈릴리호수와는 달리 사해(死海)는 이름 그대로 어떤 생명도 품을 수 없는 죽음의 호수이다. 사해는 왜 생명을 품을 수 없을까. 주일학교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갈릴리호수의 물은 요단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반면 사해는 물이 유입되기만 하고 흘러나가지 않는다.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호수에는 생명이 넘치고 흘러 보내지 않는 사해에는 생명이 없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쏟아지는 말씀의 풍요 속에서 내 믿음이 충만해졌다고 착각했다. 착각은 요즘 말로 ‘현타’¹로 이어졌다. 내 믿음의 정체, 거대한 ‘사해’가 드러났다. 각종 설교, 성경공부 등을 욕심껏 듣고 비대해진 귀, 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손과 발은 퇴화하였다. 하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난감했지만 말씀은 “때를 얻지 못해도 전하라” 하신다. 나는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에 내보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필히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만 사해와 같은 내 믿음을 살릴 수 있다. ‘비전 예배’는 각자의 일상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장로님을 필두로 참석자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 관심 분야를 기독교 세계관에 오롯이 담아서 내놓는다. 모두들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노력했고, 나는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이분들의 강의는 복음을 나누는 것에 무지했고 창의적이지 못했던 나를 일깨워주었다.

현직 교수님이 장로님의 강의는 주제를 불문하고 세상 모든 것으로 주님을 증명하는 듯하다. 강의를 듣고 나면 마치 개안수술이라도 받은 듯 불순물로 뿌었던 시야가 밝고 명료해진다. 그렇다. 세상은 내가 대립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적대적인 대상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소립자에서 명왕성까지, 아담부터 심지어 시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강의가 거듭됨에 따라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이 모두 찬양과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아름다운 방증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시작한 온라인 ‘비전 예배’. 그러나 어떤 상황도 예배의 본질을 흠잡 낼 수 없다. 좀 더 단단해지고 또한 탄력이 더해진 ‘비전 예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기는커녕 내 안에 사해처럼 고여있던 은혜와 복음에 물길을 터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비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길 바라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1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 이르는 말로,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글쓴이 이상희

동문교회 집사, 주일학교 아동부교사, 비전예배 예배자, 용진이와 서연이 엄마이다.



기독교대한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기독교대한학교는 공립학교 내지는 일반 대한학교 이상으로 복잡한 논의의 층위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대한교육, 학교라는 3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대한학교는 일반학교의 ‘기본기’를 갖추면서도, 대한교육과 기독교 학교의 ‘3중 정체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대한교육은 무수히 많은 과제를 안게 된다. 대한학교 내지는 기독교대한학교에 관련 연구물들은 대한학교가 지닌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공통적으로 교사의 자격 내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기독교대한학교의 교원양성체제와 현직교원의 재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모색하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7개교 331명의 기독교대한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독교대한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 경험을 지닌 8인 교원과 관련 분야 3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한학교가 되기 위한 양성과정의 체계화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기존의 교대와 사범대에서 양성되는 방식보다는 기독교대한교육 관련 연합회가 주관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공교육 근무 경험을 지닌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격증, 교원양성과정, 공교육 경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5점 만점 기준).

공교육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서 “대한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자격증(1정,

2정) 소지가 필요하다”(공교육 근무 경험 집단 3.35 < 무경험 집단 3.92), “교직과정 또는 교,사대와 같은 공교육 교원양성과정의 경험이 대한학교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공교육 근무경험 집단 3.67 < 무경험 집단 4.05), “공교육에서 기간제 교사 또는 정교사 경험을 가지는 것이 대한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공교육 근무 경험 집단 3.47 < 무경험 집단 4.20). 항목에서는 공교육 경험을 지닌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평균값에 나타나고 있었다.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과 공교육 교사 경험이 기독교대한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기본기를 쌓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경직된 사고와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공교육과 기독교대한교육의 생활 문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학교는 공교육과 상당히 다른 환경과 문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교대와 사범대의 학습경험이나 공교육 근무 경험이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거나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공교육 경험을 지닌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교육 근무 경험이 없는 대한학교 교사들은 공교육의 경험을 지닌 교사들이 나름의 기본기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독교대한학교가 공교육과 다른 문화와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양성과정 및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의식,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

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면담 분석결과, 기독교대안학교는 공교육에 비해서 교사의 성장을 자극하는 환경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우수 인력이 유출되어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공교육은 국가의 각종 지침과 통제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교사직을 맡는다고 해도,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약한 상태여서 결국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대안교육은 정해진 틀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과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면담자들은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한 교과통합능력, 변혁성, 영성과 인성, 소명의식, 교사 전문성,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이 성장하는데 난점도 적지 않았다. 교사 차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성장하기 힘든 구조, 갈등 발생, 전문성 부족으로 압축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대안학교에 들어왔지만, 소진되거나 오랫동안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의 비전과 방향의 모호성 내지는 합의 부족, 교회의 지나친 간섭, 학부모의 간섭, 재정 지원 부족, 역사적 안목 및 중장기적 전망의 부족으로 압축된다. 교사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은 공교육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급여체계이고 결국 열정페이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학교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만든다. 특히, 교회에서 설립한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육의 비전과 철학, 방향에서 일치하지 않았을 때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교사들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그

특수성을 고려한 방식을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서 대안교육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학과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물론, 대안교사자격증 신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원자격검정령 19조에 전문상담교사와 영양교사와 같이 대안교육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면 되지만, 그런 방식이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현행처럼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기준으로 대안학교에서 선발하되 대신 대안교육 아카데미 이수자를 포함하여 학교별로 선발하거나,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기독교대안학교에 교사직을 맡기를 원하는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습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대안교육 아카데미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심화과정에서 실습을 일정 기간 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해서 연맹 내지는 학교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원자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대신, 기독교대안학교 현직 교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된다. 학교 안팎 학습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대학원 과정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부원장,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사를 역임했다.

<신앙과 삶> 독자 한마디

<신앙과 삶>5+6월호 | 특집: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 우선 시의적절한 주제를 특집으로 삼고 다양한 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특집 주제를 바탕으로 쓰여 있어서 특집 아닌 부분을 나누어서 내용을 이분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중원 (서강대 철학과 외래교수)
- 개인적으로 특집 글 '뉴노멀 시대, 인공지능(AI)과 공존하는 삶'(최우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부분 변화된 우리 삶의 방식과 그 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 김창원 (부경대 기계공학과 교수)
- 뉴노멀이 낯설지 않는 것을 보니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과 삶>을 통하여 먹고살기 바쁨을 핑계 삼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 모아론 (전남대 지역개발학 박사과정)
- 경제 글들이 산문 위주이다 보니 여유가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인포그래픽 같은 것이 글의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면 가독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문화생활, 취미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다뤄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 류진호 (한국 원자력 통계기술원 연구원)
- 최은미 저매님의 '청년 일터이야기' 글 중 소명예 대한 정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소명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 곧 우리의 자아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 문주은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 박사과정)
- 손봉호 교수님의 '세상의 뉴노멀 현상이 교회의 뉴노멀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대면의 영적 가치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도 견고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성찰을 얻습니다. 변화될 무엇 보다 변하지 않을 영적 가치를 붙잡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 박정우 (광운대학교 교목)
- 손봉호 교수님의 '세상의 뉴노멀은 교회의 노멀이 될 수 없다'를 통해 어느덧 1년이 넘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유롭게 함께 모이던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졌습니다. 세상은 '언컨택트 뉴노멀'로 세계가 다 넘어간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노멀'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 정문선 (성균관대 사교육성신연구소 연구원)
- 저는 김정욱 교수님(인터뷰) 말씀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원 보호와 절약에 신앙적 고민이나 해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19' 이후 시대에 자연과 인간 환경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모이는 일에 힘쓰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정성지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 전반적으로 내용이 각자 다른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로 안내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당장 일에 몰두하며 앞만 보고 사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최재운 (KAIST 물리학과 교수)
-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 옹구화 (합동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

KCI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 26권 2호(2021년 6월 30일) 발간 :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이 게재
* 1년 4회 발행 (3/31, 6/30, 9/30, 12/30)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온라인 : Zoom & Youtube)



주제 : "뉴노멀, 기독교 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21.05.22(토) 13:00~18:00 (대학원생부: 10:00~12:00)

주제강연 :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양승훈 (VIEW 교수), 강영안 (미국 칼빈신학교 철학 교수)

분과별 논문발표회(Zoom) : 대학원생(2개 분과, a.m. 10:00~12:00) & 교수/일반(9개 분과, p.m. 3:30~6:00)

* 새로나남 청년우수논문상 수상자: 김병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박사과정)

<2021년 제2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2021년 6월 7일(월) 오후 8시 / 장소: Zoom 회의

참석: 18명 실행위원 중 14명 출석

<기독교대안학교와 양해각서(MOU) 체결>(2021년 2월 9일)

별무리학교(교장: 이상찬), 꿈의학교(교장: 이인희), 높은뜻씨앗스쿨(교장: 이정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깨나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나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 행 위 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권오병(경희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번역가),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신앙과 학문> 편 집 위 원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종강했다.

- 삼일교회, 성광교회, 성남제일교회에서 진행된 '부모교사세계관학교'가 종강했다.

-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도자 프로그램인 '2기 기본과정'과 '1기 강사과정'이 진행 중이다.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나니아 연대기>의 여섯 번째 책인 <은의자>가 진행 중이다.

- CTC 홈페이지 오픈 : 관심 있는 분들의 회원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www.ctcworldview.com)

<2021년 여름 사역 안내>

제28기 기독교세계관교육 베이직 세미나(7월 19일)

온라인청소년세계관캠프 1차(7월 26-29일), 2차(8월2-4일)

월패아 부모특강(8월 18, 25일) - 기독교세계관으로 그리스 신화 읽기

온라인 CTC 프로그램이나 참여 신청 문의 : CTC 사무국(010-2792-5691)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 신간 소개



<왜곡된 진리> 리처드 마우 지음 | 박일귀 옮김 | 268쪽 | 14,000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세계관 전쟁에 관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

경계해야 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왜곡된 진리다

인본주의, 일원론, 오컬티즘, 허무주의, 상대주의의 속살을 만나!

“기독교 철학”이 얼마나 흥미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주는 답변이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는가를 독자들도 함께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강영만 미국 캘빈신학교 철학신학 교수,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문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데 있다. 그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의 언어가 일상의 경험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석 청파교회 담임목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1년 5월, 6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5월	2021년 6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5월	2021년 6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70,000	400,000	인건비	일반급여	4,920,000	4,920,000
	임원회비	720,000	730,000		기타급여	400,000	400,000
	일반회비	4,596,000	5,323,500		소계	5,320,000	5,320,000
	기관후원금	2,750,000	2,8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5,000		사무실관리비	354,484	334,324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69,700	214,480
	CTC후원금	50,000	60,000		우편료	3,580	9,580
	VIEW후원금	1,310,000	1,190,000		소모품비	89,500	3,98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89,500	434,500		식비	262,000	310,0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67,290	598,320
	기타	0	18,805		퇴직연금	394,510	394,510
					컴퓨터	0	0
					교육비	0	0
			회의비		3,500	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174,915	156,110		
			기타(지급수수료)	135,696	125,686		
	소계	10,585,500	11,011,805	소계	3,060,175	3,051,99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13,435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210,595	1,301,090
	법인세환급금	0	3,010		소계	1,270,320	1,360,815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435,219
	기금차입	0	0		발송비	340,350	242,000
	결산이자	0	0		소계	340,350	2,677,219
	예수금	340,510	315,150	기타	세금	0	0
					잡비	800	300
소계	340,510	331,595	소계		800	3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70,000	130,000	학회	학회강사료	1,000,000	200,000
	학회행사수입	1,170,00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519,53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537,820	352,320
	학술지심사비	490,000	70,00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게재료	0	3,201,6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1,000,00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	160,000	140,384
	소계	2,830,000	3,401,600		소계	2,217,350	692,704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1,002,525	933,68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 미수금	933,680	943,185
	전월 이니시스입금	20,000	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0
	소계	1,022,525	943,680		소계	943,680	943,185
당월 수입액		14,778,535	15,688,680	당월 지출액		13,152,675	14,046,213
전월 이월액		32,923,423	34,549,283	차월 이월액 (잔액)		34,549,283	36,191,750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1년 5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벽,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장,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서유미,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감미리,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광택,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중, 김남진, 김동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정,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찬, 김성호, 김세영,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승택,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안, 김재영, 김경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용,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성, 김효숙, 남순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재환,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철, 박승호, 박시운, 박원고,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송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지석, 유근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관,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운, 이덕영, 이동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숙,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종성,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재광,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수,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대용, 정동관, 정민석,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성,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성,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석,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계호,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엄준용,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장인규, 정대용, 정훈, 채기현, 최영, 허정도, 황혜정, 3만 강다열, 강진구,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나용근,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새너리치드,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우병훈, 윤형준, 전향철,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심,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이형직, 전희경, 정은애, 한윤식, 6만 서정우, 석중준, 윤석, 최용성, 7만 박문식, 최태연, 8만 이종훈,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김정희, 15만 삼성교회, 20만 손정업, 25만 양승훈, 30만 김지원,

계 7,925,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도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800,000원

회원후원

(2021년 6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벽,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장,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성,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길수,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보규,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윤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기민석, 김원평, 김경호, 김광택,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중, 김남진, 김동우,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미림, 김민정,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새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찬, 김성호, 김세영,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승택,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윤,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안, 김재영, 김경모, 김정은, 김정철, 김정호, 김종일, 김종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용,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성, 김효숙, 나영진, 남순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재환,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상철, 박승호, 박시운, 박원고, 박은주,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송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석, 백종국,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탁, 송이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선자, 안성희, 안승범, 양성근,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지석, 유근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해무, 윤관,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태형, 윤향미,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노운, 이덕영, 이동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숙,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종성,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혜옥,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대용, 정대용, 정동관, 정민석, 정봉현, 정성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성,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성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인경,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성, 2만 강용란, 김보경, 김용석, 김정욱, 김정호, 김태진, 박계호,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건, 이기서, 이연우, 이주은, 장인석,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두환, 김방용, 김예원, 나용근,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우병훈, 윤형준, 전향철,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심,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이원삼, 이형직, 전희경, 정은애, 한윤식, 6만 석중준, 신현호, 오창성, 장근배, 7만 나우시, 박문식, 10만 박영주, 손봉호, 손정업,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김민철, 박홍기, 유용욱, 정인석, 조용호, 현은자, 현창기, 18만 박순자, 20만 강영안, 양지수,

계 8,153,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새언약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복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다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심교회, 일원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원도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900,000원

전체 11,053,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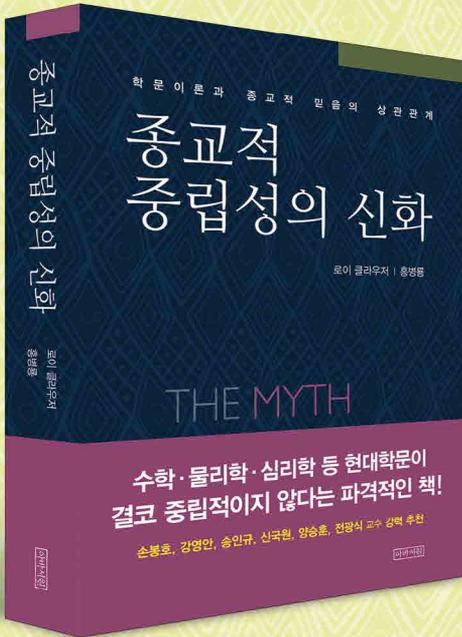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1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홍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헌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모든 학문이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로이 클라우저 지음 | 홍병룡 옮김 | 520쪽 | 35,000원

손봉호

강영안

송인규

신국원

양승훈

전광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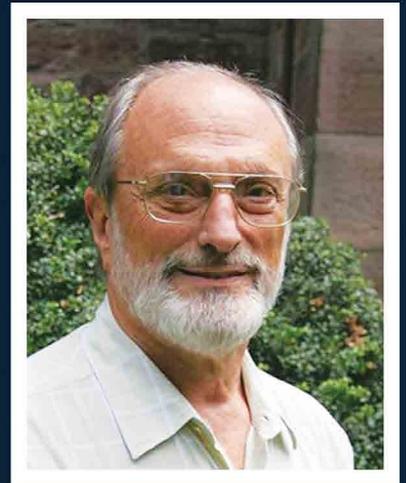
강력 추천!

네덜란드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的主장에 근거하여 모든 이론의 바탕에는 모종의 종교적 믿음이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학문 이론의 숨겨진 전제를 탐구한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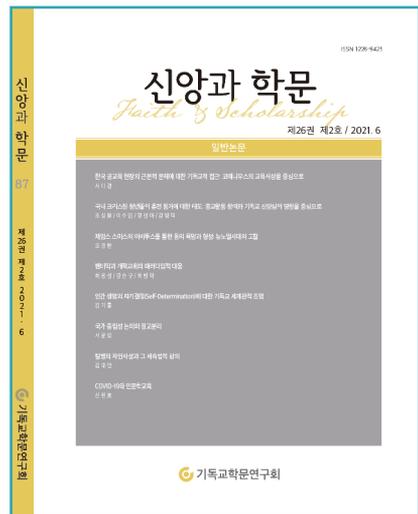
로이 클라우저 (Roy A. Clouser, 1937~)

1968년부터 2002년까지 뉴저지 칼리지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쳤고 현재는 본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다.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폴 틸리히와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에서 헤르만 도예베르트와 공부했으며 박사학위는 '헤르만 도예베르트 철학 연구(종교철학 분야)'로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에서 받았다. 저서로는 본서 외에 Knowing With the Heart: Religious Experience and Belief in God(IVP, 1999 / Wipf & Stock, 개정판, 2007), Dark Matter: Why Naturalism is Blind Faith(출간 예정)가 있고, 여러 책과 철학 및 종교 관련 저널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투고안내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신학과 학제간의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 ◆ 2021년 7월 1일 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상세안내**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 '학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 **일반 문의** :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 **신앙과 학문 문의** :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